(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85 1981년12월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December 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캐나다 경제전망 암울

자동차, 주택수요 감축기대

GNP성장률 더 떨어져

캐나다경제의 침체는 문자 그대로 암울하다. 캐나다통계국이 발표한 지난7, 8, 9월의 3/4분기 GNP(국민총생산액)는 인플레율을 감안할 때 4%가 떨어졌다.

이통계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캐나다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6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실질적 GNP 성장율은 5.6%를 기록했으나 그이후 계속된 국내외의 고금리는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전국의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못하게했다.

(※실GNP성장률= 명목GNP성장률-GNPdeflator(물가지수를 감안한 계수)

통계국은 현재추세로 보아 금년말까지 개선될 전망은 없다고 했다.

현재 계속되는 소비자의 수요감퇴를 감안할 때 GNP성장률은 연평균 7.6%로 1951년이래 최하의수준으로 떨어졌고캐나다경제위원회는(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내년 82년도에 캐나다경제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경제후퇴는전문가들에게는 기록적인 후퇴로 받아들이나 캐나다경제위원회는 3/4분기의 실GNP성장률은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4분기의 GNP통계에서 유사이래 처음으로 대폭적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것은 기업이윤(Corporate Profits)으로 2/4분기통계보다 15.8% 감소를 기록했다.

또한가지 성장후퇴의 요인은 106억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적자이다.

통계국이 4/4분기의 전망을 어둡게 생각하는것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4.2%가 늘었으나 이것이 단순히 고금리로 얻는 이자소득의 증가란 것이다.

캐나다경제위원회가 예견한 82년의 캐나다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금년도 12.5%의 인프레이션률은 82년도에 10.7%로 떨어진다. 그러나 에너지가격은 20%쯤 오를것이고 식료품비는 10% 인상될것이다. 또 평균 12.1%의 임금인상은 높은 인건비를 요구할것이고 따라서 캐나다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실업률은 더욱 늘어나 금년도의 7.5%에서 82년도에는 8.2%로 늘어난다. (완전고용일때 실업률은 4%로 간주한다.)

○최근들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소가 된 수출실적은 82년에 2.4%의 성장밖에 기대못하나 금년도 5% 증가를 본 수입은 떨어질 전망이어서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57억달러에 이를 경상수지적자는 계속적 압력요소로 금융관리들은 미국의 이자율을 계속 주시하게 될 것이다.

○사업투자는 금년도의 6.3%증가에서 3%떨어진 3.3% 증가에 그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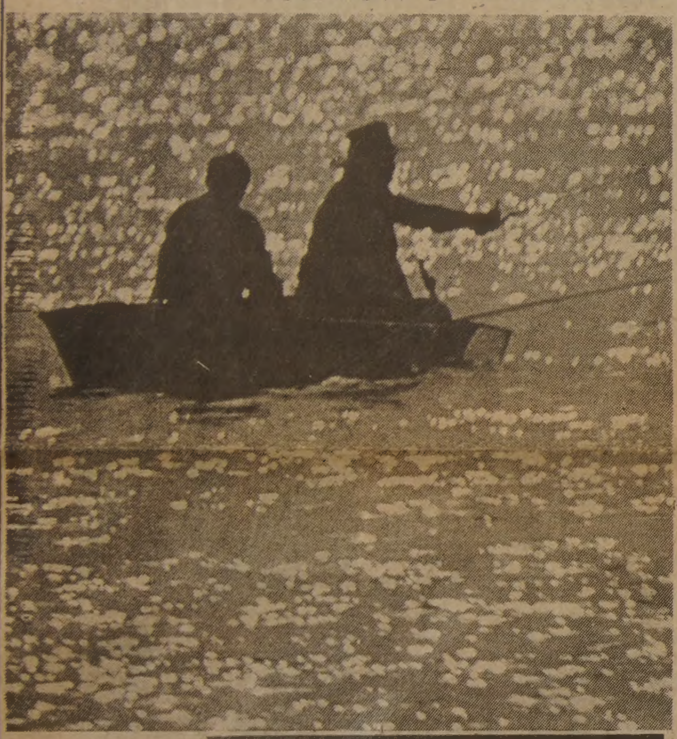
에너지산업투자는 13%로 늘어날것이나 비에너지산업은 금년보다 2.9% 후퇴하게 될 것이다.

○소비율은 82년에 겨우 2.6% 늘어날 전망이나, 자동차수요나 주택 수요의 전망은 계속 어둡다.

○주택경기는 82년 후반쯤 호전될 가능성이 있긴하나 주택의 신축수는 18만동에 불과, 인구 성장을 감안할때 공급부족을 나타낸다.

○정부지출증가액은 1.4%에 불과 정부는 계속 긴축정책을 쓸것으로 보여진다.

재정적자는 금년도 60억달러에서 82년도에는 77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렌즈

저물어가는 겨울바다에…

水面에 떨어진 夕陽빛이 잔바람에 부서져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겨울바다에 낚시 줄 늘이운 강태공들. 저물어가는 해, 저물어가는 날의 낚시배가 한폭의 그림 같은 실루엣을 선사하고 있다. 〈유니버시티레이크〉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스텔코 파업종식

불황으로 1500명 해고

121일째 파업중이던 해밀턴의 스텔코철강 회사의 종업원들은 29일밤 회사측과 잠정적인 노사문제 합의는 보았으나 철제품 시장의 불황으로 12,500 명 종업원중 1,500명정도는해고당할 것으로 보인다.

스텔코회사의 대표 J.P. 고든씨는 이날밤 철제품의 매기가 하락, 회사는 부득이 조업및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합의에 다소 불만이 있기는 하나 인플레이션율과 부응하는 임금인상율등 노조측 주요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했다.

최종합의는 3일 있은노조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된다.

노사간의 합의내용은 첫 1년간은 시간당 $1.25, 2년째는 시간당 25센트, 3년째는 시간당 30센트씩 인상하면 그 3년간 물가 인상율의 70%가 봉급에서 커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인회관 이전문제 교민공청회 열어

토론토한인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한철)는 한인회관을 블루어 한인상가로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12월2일(수)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교민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

많은 교민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여행사와 항공요금 ― 그 실태〉 ⑦

여행사는 써비스 개선해야

외상값 안갚는 교포들도 문제

토론토 한국계 여행사들도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만한 판매실적이면 항공사와 연결된 컴퓨터·터미날을 설치, 예약, 항공시간등을 신속 정확히 서비스하고, 톨·프리(Toll free) 전화번호도 가설, 지방 거주인들이 쉽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많은 캐너디안여행사들은 뉴욕행 여행객에게도 호텔, 렌트·카 예약은 물론 쇼(Show) 까지도 안내해 준다. 여러 교포들은 "교포여행사에 가서 호텔예약, 렌트·카 예약등을 부탁하면 촌사람 취급을받는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뉴욕이나 시카고같은 짧은 거리를 가면서 그런 것을 부탁하기는 미안하다는 어진(?)생각을 가졌다.

토론토의 교포여행사 사장들은 여행사 출신이 아니라 항공사 출신이라는점에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고 일부인사들은 지적한다.

이곳 여행사들은 지금까지 교포들의 한국여행에만 안주, 여행개발등을 게을리해 왔다. 점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나이아가라폭포를 찾으나 토론토여행사에서 안내하는 관광단(Inbound Tour)은 거의 없다. 또 실질적 여권업무에 과연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뿐 아니라 북미의 휴양지 여행계획등여행상품(Travel Pakage)개발에 노력해 왔는가?

어느 교포는 가장 값싼 뉴욕행 비행기요금을 문의해도 어느 여행사도버팔로에 가면 단돈 $27에(※본보 10월27일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곳은 없었다고 여행사의 서비스정신을 아쉬워 했다.

결론적으로 여행사는 단순히 항공티켓을 파는 매표소(Tiketing Office) 의 역할보다는 여행안내자(Travel Consultant)의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여행사측 얘기에의하면 일부 여행자들은 "한국 다녀와서 주겠다" 면서 항공표를 끊어갔다가 2~3개월후 돌아와서 요금을지불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중 많은 수표가 부도가 났고, 일부는 캐나다에 돌아왔으나 잠적, 요금을 종내 한푼도 안갚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출발 하루전 예약을 취소하고도 항공사에 주어야 하는 예약취소 벌금은 안내려고 하는 행동등도 있다.

항공사는 대체로 "1주일후 수금"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여행사들은 후불여행자요금까지 미리 항공사에 내야하는 판이다.

대체로 월5천달러의 경비가 필요한 여행사운영은 몰상식한 교포들의 부도, 잠적등으로 곤혹을 당하는 때도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선의의 여행자에게씌워지는 일이 많은 것이다. 더군다나 비여행철인 겨울에는 더욱 수입이 줄기 때문에 여행사의 서비스는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교포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청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끝―

편집자주: 지난 10월 10일자부터 시작한 특집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는 오늘7회분으로 끝을맺는다.

그동안 조언을 아끼지않았던 많은 독자들에게 감사한다. 지면관계상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그대로실리지 못했던 점도 아울러 사과한다.

이 특집이 연재되는 동안 항공사나 여행사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도받아 왔다.

이 특집이 연재됨으로써 교민들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됐는가 하는 점 에서는 그 평가가 아직 나올 수 없다.

다만 독자들의 여행상식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편 집 인: 이 석 현
광 고 부 장: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연말연시 취중운전단속 강화

벌금 $2,000까지, 또 6개월징역

연말 연시 파티철을 맞아 메트로 경찰은 12월 한달동안 취중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을 위한 스폿·책(Spot Check)을 강화, 경찰은 828대의 순찰차와 146대의 모토사이클을 동원한다.

29일 메트로경찰은 새해까지 매일밤 3 0군데 이상에서 스폿·책이 실시되며, 다운타운지역에 집중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도 집계를 보면 53,884대의 차가 스폿·책을 받고 그중 95대가 부적격운전(Impaired Drivig)으로 고발당했다.

작년 12월 한달동안 메트로토론토에 6,044건의사고가 발생, 1,202명에 부상당하고 1,760명이 부적격운전자로 판명됐다.

캐나다 형법에 의하면처음으로 부적격운전위반 을 했을때 $50~$2,000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을 살거나 두가지 전부를 같이 받을 수 있다.

재범일 경우 1년에 14일동안 의무적으로 수감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위반시에는(2범이상) 3개월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을산다.

벌금과 징역이외에도 초범인 경우 3개월 자동차 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재범이상일때는 6개월 로 늘어난다.

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3년까지 면허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ST.W(한국관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공 고

재미한국 과학기술자협회에서는 준비절차로서 아래와 같이 1982년 제4차 KSEA모국방문 학술대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아 래―

①성명
②주소
③직장명
④전화
⑤전공분야 또는 특기
⑥참가희망여부
⑦ 논문발표 희망여부
⑧분과좌장 희망여부
⑨가족동반 희망여부
⑩국내취업및 기술자문 희망여부

기타 자세한 내용과 설문서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전화로 조속히(가급적 12월 10일이전)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종상B)592-2881
R)881-8349
이태영B)424-3683
R)492-9889
윤광석B)965-7986
R)1-876-1668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온타리오지부 신복균

서울 사대부고 망년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회 비: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백 이 삼-251-6578
김 강 욱-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공 고

긴급총회

금번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 이전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총회를 가지고저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1년12월12일오후2시
장소: 한인회관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 박인순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밴덜리즘 대책안 발표

온주 특별기동반 3년 연구결과

날로 증대되는 온타리오주의 밴덜리즘(Vandelism; 건물및 기물파괴행위)을해결하기 위해 온타리오주가 조직한 특별기동반의 3년간의 연구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온타리오 가정법원 루시엥·블리우상임판사가 지휘하는 동기동반은 밴덜리즘은 앞으로 형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법을 강화, 긴밀한 지역사회 와의 협조아래 파괴자에 대한형벌의 방향을 피해자 보상, 피의자 구치, 사회봉사 사업동원등으로 돌리도록 하는등 66가지의 대책을 내놓았다.

온타리오주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은 동기동반이 제출한 66가지 제안의 대부분이 합리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곧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기동반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4년~79년동안 온타리오의 기물훼손행위는 50% 증가되었으며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년150만달러에서 350만 달러로 증가, 2배이상이 되었다.

동 기동반의 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000미만의 훼손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적인 훼손이나 천달러까지의 재산파괴에 대해서 최고벌금의 2배를과할 수 있다.

□훼손액이 $1,000이상일때는 정식 기소된다.

□법원은 피의자를 투옥하는 대신 사회봉사사업에 노력동원을 시킬 권한이있다.

□미성년자도 지금껏 적용되었던 "미성년비행"으로 취급되지않고,정식기소된다.

□공공재산과 사적재 산파괴에 대한 차별 적용을 없앤다.

□기물훼손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는 예방계획을 증대시킨다.

□교육위원회에 촉구,각 학교에서 기물훼손방지 프로그램을 실시케 한다.

□기물훼손피해자가 피의자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관선변호사가 돕도록 명한다.

동 기동반의 위와 같은 제안은 기물훼손 행위자에 대한 보다 긴 수감을 원하는 일반시민의 요구와는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컴퓨터기재 생산 한·미회사 제휴

(서울 30일 연합)최근한국의 국제상사는 미국의퍼킨·엘머(Perkin Elmer Co) 스토레지·테크놀로지사와 (Storage Technology Corp) 계약을 체결, 컴퓨터 기재생산을 하기로 했다.

30일 국제상사는 12월부터 퍼킨·엘머 3200시리즈(고성능 미니컴퓨터) 와디스크, 테이프같은 컴퓨터관련기재를 판매,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퍼킨·엘머 3200 시리즈는 세계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토레지·테크놀로지주식회사의컴퓨터 관련기재들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마티나 나브라틸로바양이 22일 동경 라이온컵 쟁탈 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숙적 크리스 에버트 로이드양을 물리친후 우승배를 치켜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에버트양은 29일 호주 시드니 에서 열린 New South Wales테니스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나브라틸로바를 6-4, 2-6, 6-1로 물리치고 앙갚음을 했다. 두선수는 30일부터 멜보른에서 거행된 호주 오픈에 참가한다.

국내항공요금 인상확실

1월부터, 에어 캐나다노선

캐나다 국내선을 운행하는 항공회사 에어·캐나다(Air Canada)는 내년 1월11일부터 항공요금을9.5% 인상할 예정이다.

에어·캐나다는 인상요금신청서를 27일 캐나다교통협의회에 제출했다.노선별 인상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교통협의회는 금년초 일차인상안을 거부했었 지만 내년1월 인상안을 통과시킬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300B.C.유물발굴 철기문화 1세기경?

(경주 28일=연합) 28일 경주 신라왕조(57BC~668AD)왕릉들에서 BC 300년대의 구리거울, 칼잡이등 수십가지의 고대유물들이 발굴됐다.

탐사반의 고고학자 한병삼씨는 발굴된 유물들은초기 신라의 역사와 특히 4세기중엽이전에 철기문화권에 속한 왕국이 존재했다는 중요한 단서이다. 고 밝혔다.

발굴된 여러유물중 구리거울은 고대중국 한 나라(207BC~10AD)에서 만들어졌으며 중국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밖에 손잡이가 달리고 주둥이가긴 토분, 대야, 화분이 발견됐으며, 도끼, 화살촉, 칼, 못들은 철로 만들어진 유물들이다.

노동조사단 파견 중남미등 6개국

(서울28일=연합)한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의 노동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12월초 이지역 6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30일 노동부는 12월 7일 출발하는 이 조사팀이 이 지역의 경제개발계획및 외국인 고용정책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국은 칠레, 멕시코, 콜럼비아, 나이제리아, 케냐, 아이보리·코스트(상아해안국)이며 이들은 대부분 석유및 천연자원은풍부하나 기술·인력면이 부족한 나라들이다.

교 민 동 정

◆김기덕(제일식품 경영)=75년 이민, 해밀톤 에서 가게를 하다가 토론토이주, 블루어의 「단풍식품」을 사들여, 상호를 「제일 식품」으로 바꾸어 11월30일 개업했다. (전화 532-1054)

아들(6세)은 바이 얼린에 뛰어나 해밀톤에서 유명하다.

◆양재원(양우택씨 외아들)=지난 13일 Leaside 고교 9년 졸업식에서 학년톱, "제네럴·프로피센시·아워드·포·그레이드9"을 받았다. 9개과목 평균 93점인 양군은 작년에는 전교수석을 한바 있다.

개솔린, 난방오일가격 인상

12월1일, 리터당½¢

지난 10월1일 국내정유 산지가격의 인상으로 개솔린과 난방오일 가격이12월1일부터 리터당 1/2 센트(갤론당 2.25센트) 오른다.

연방정부는 배럴당 1.85달러하는 특별 소비자세를 30일 자정을 기해 철폐함으로써 배럴당 $2.25인상된 정유산지가격의 영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감세조처가 없으면 정유, 산지가격의 인상은 그대로 소매가격의 인상을 초래, 1리터당 1.6센트(갤론당7.2센트)가 오른다.

▲대성황을 이룬 롤링·스톤즈의 시카고공연.
23일 로즈몬트·호라이즌 스태디움에서 열린 영국 록그룹 롤링 스톤즈의 공연실황을 관람한 시카고의 록 음악팬들은 롤링 스톤즈의 열창에 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궁지에 몰리는 CBS-TV

앵커맨 댄·라더 교체후

▲댄·라더씨

CBS-TV가 지난 TV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월터·크롱카이트를 댄·라더로 지난3월 교체한후 미국국민들은 크롱카이트의 바톤을 이어받아 넷트웍뉴스의 앵커맨이 된 라더가 과연 크롱카이트가 해온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었다.

그러나 라더가 앵커맨 자리에 앉은지 9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TV뉴스에는 전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CBS의 크롱카이트에 눌려 빛을 못보던 NBC와 ABC가 댄 라더의 CBS와 막상막하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NBC와 ABC는 그간 꾸준히 특파원,프로듀서의 수준을 향상 시키면서 CBS의 지배적인 뉴스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왔던 것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들 NBC,ABC는 CBS의 우수한 탈랜트를 모방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왔다.

반면 CBS는 라더가 앵커자리에 앉은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저녁뉴스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니일슨 회사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CBS는 저녁뉴스 시청자를 340만명 잃은 반면 ABC가 250만명정도 증가됐고 NBC는 종전의 시청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들은 숫자게임에 불과할수도 있으나 TV방송국의 명예와 재정적 수입에 커다란 영향력을 준다.

CBS는 NBC,ABC등과의 경쟁력 약화로 저녁뉴스 시간의 광고가 아직 비어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또한 과거에는 저녁뉴스의 광고비가 30초당 4만달러로 NBC나 ABC보다 1만달러 높았다. 지금은 다른 경쟁회사와 같이 3만달러를 받고있다.

더군다나 다른 TV방송국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을 강화,잡지형식의 뉴스쇼와 아침뉴스시간의 연장등으로 공격하고 있어 CBS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CBS는 내년봄 은퇴하는 윌리암 레너드 대신에 밴 고든 싸우터씨를 뉴스책임자로 기용할 예정이며 일부 CBS 사람들은 NBC,ABC등에 대한 반격으로 커다란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CBS의 이사로 있다가 NBC로 전직한 리차드 쌀란트씨는 "라더가 지금 곤경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 CBS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월터·크롱카이트도 61년에 취임한후 6년이 지난 67년부터 TV뉴스를 지배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뉴스시간 시청률·광고 줄어

광고비도 ABC·NBC와 같은 수준으로

라더는 극심한 경쟁으로 CBS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음을 시인하면서 유능한 사람들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CBS를 떠난 로저 머드,마빈 캘브,버나드 쇼어등의 공백을 하루 아침에 대신 메우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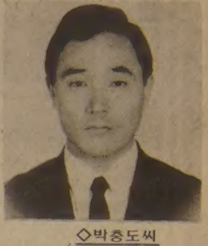
만약 CBS가 성급히 크롱카이트를 교체했다면 그가 나중에 TV대통령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마라톤 선수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라더의 말대로 CBS가 다시 정상을 되찾을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것 같다.

제5계절 예술과 에로티시즘

박 충 도 (문협회장)

※필자소개 : 60년-연세대 졸업, 60~66년 : 최고회의 안보위원회 주임연구관, 66~69년-이태리 유학, 로마대학및 국제대학 수학, 69년-캐나다 이민, 81년 캐나다한국문협 회장.



◇박충도씨

최근 이태리에서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조각및 미술작품중 일부 걸작들을「UNFIT FOR HUMAN OBSERVATION」이란 이유로 일반공개를 금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결정이 사실이라면 예술애호가들은 말할것도 없으며, 예술전문가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천부적 예술재능을 가진 이들의 예술작품들은 예술의 극치를 나타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폴레옹"의 여동생 「파우린·보나팔트」의 나상과 "베르니니"가 조각한 「프로셀핀의 겁탈」(Rape of Proserpine)도 포함될지도 모른다.

이들은 모두 로마시내에 있는 「빌라·볼게제」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우린」의 나상은 신고전주의의 거장 "안토니오·카노바"가 「파우린」이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순 백색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으로서그녀가 깔고 있는 요가 어찌나 실감이 나는지, 정말 보드럽고 따스한 실물같이 느껴져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또한 "베르니니의" 「프로셀핀 의 겁탈」만 하더라도 겁탈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녀의 모습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실감나는 조각이다.

이태리정부 당국의 이러한 비공개 조처에 대한 설명은 "일반 관람자들에게는 부적당한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이들작품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이나 음탕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이들 부적당한 걸작은 "라파엘"이 1516년 바티칸내의 "비비에나"추기경의화장실 벽에 그린 「비너스」와 「큐피드」의사랑의 편력과 사랑의 승리를 묘사한 그림도 포함될 것이라 하며, "티티안"의 「비너스」와 「올갠 연주자」 "고렛찌오"의 「쥬피터」와 「안티오페」, "브론지노"의 「격정의 우화」등등 르네쌍스시대의 대표적인 걸작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한다.

이들 수난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지나치게 에로틱하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아유를 들어 일반공개가 금지될 것이라고 하나 진정 이들 예술작품들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일반관람자들에게 부적당한 작품들인지 반문해 보고 싶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예술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세기적 예술작품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의 부도덕한 성향이없어질 것이라고 속단하는것은 아주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로랜스"의"「차타레부인의 사랑」이 과연 에로소설이었던가? 그 말썽많던예술작품이 지금은 어떻게평가되고 있는가?

이러한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이태리 정부의 결정은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 놓았을뿐 아니라,예술과 에로티시즘 논쟁에 또하나의 불씨를 던진 결과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로티시즘이란 강력한 성적욕망을충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바, 그러한 위대한 예술작품앞에서 강력한 성적 충동을 느끼는 관람자는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또한 이들 예술가들이 에로틱한생각을 가지고 이들 작품 을 창작했을 것인가?

진정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상상의 세계에서 자유로이 마음껏 예술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적어도 "다빈치","라파엘","티티안","베르니니"및"카노바" 등 르네쌍스 시대의 거장들의 작품만이라도 이러한 범주에 귀속시키지 말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어디까지가 에로티시즘 인지 자로잴수 있다면 얼마나편리한가를 한번더 생각해본다.

惡意없이

새映画

個人에게 치명상입힌 신문의 誤報告發

▲샐리·필드 기자의 조바심이 믿어버리는 왜곡된 진실로 무참히 무너진다.

신문기자로서 「Absence of Malice」를 보면서 신문이라는 대부밑에서 많은 기자들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펜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펜이 기자를 굴려왔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자성케 된다.

마이애미의 노조지도자 디애즈실종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연방수사관 밥·엘라반은 입류기자 샐리·필드를 이용 사건을 풀어보려 한다. 엘라반은 범법자의 아들이나 깨끗한 생활을 하는 마이클·갤라거(폴·뉴만)에 혐의를 두고 필드에게 그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믿도록 함정을 판다. 이기사가 1면에 크게 보도되고 갤라거의 삶은 크게 뒤흔들린다. 심한 충격을 받고도 분노를 억음같이 차게 삭이며 갤라거는 수사기관과 신문에게 교묘하고 멋진 앙갚음을 하는데,

기자의 ABC를 아는 자이면 소위 유능한 기자 필드의 취재태도와 그 허약한 인간성에 어처구니 없음을 느낀다. 그녀는 확인 한번 않고 기사를 쓰고 취재원을 누설할 정도로 감상적인 서툰 견습기자일뿐, 게다가 취재대상과 침대를 나누다니. 「악의 없이」쓴 글이 무고한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발한다는 의도를 지닌 이 작품은 신문의 기본원칙엔 먹칠을 해놓고 멍청한 기자를 등장시켜 일방적으로 신문만 때려잡자는 식. 신문의 진실이 오도되고 있어 불쾌하기 짝이없는데 원작자인 전 언론인 커트·러트키는 자신과 동료기자의 전비를 영화에서 사죄라도 하자는 말인가.

갤라거의 여자친구 멜린다·딜론이 새벽에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글이 실린 신문을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줍는 장면은 무고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 진실보도라는 미명아래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무모하고 가련한 모습이어서 보는 이의 가슴을 내려앉게 한다. 그래서 갤라거의 언론에 대한 복수가 오히려 통쾌하다.

언론의 공명심과 왜곡된 보도를 정정않고 붙고 늘어지는 제작태도 그리고 신문의 책임과 윤리성 및 진실 유도자로서의 신문의 입장 또 술취한듯 구르는 「빌어먹을 볼펜」등-시드니·폴락감독은 냉정한 눈으로 신문을 2시간동안 괴롭도록 해부한다.

폴·뉴만과 샐리·필드의 연기는 최고급. 콜럼비아배급. 등급 PG. 〈津〉

謹賀新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만복이 같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매상 U.B.A.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CASH & CARRY 에 한함 —

		Special
Chocolate Bar (Reg)	36's All Flavour	$ 9.49
Glad Garbage Bag	10's	33.75
Canada Dry (Ginger Ale, Club Soda, Tonic Water)		5.49
Wilson Crush (Orange, Grape, Cream Soda Etc.)		5.29

◎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염가특별 대매출을 실시중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코리언 파워」의 비판 (상)

— 서만수씨의 글을 읽고 —

박 찬 도 (한인회 전 부이사장)

소개말 : 이 글은 본보 11월5일자 토론토한인회 임원 서만수씨의 제언「코리언 파워」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필자가 한때 한인회 부이사장의 요직에서 힘쓴 일이 있기에 더 의의가 있다 하겠다. (편집자)

◇ 박찬도씨

서만수씨가 쓴 "코리언·파우어"라는 제목의 글 〈한국일보-토론토 81.11.5〉자를 읽었다.

사진을 보니 대단히 젊어보였다. 젊은이 일수록 진보된 새 생각을 하여야 할터인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않아 섭섭했다.

인간사회에서 요구 되는 것은 과이기심(過利己心), 과명성심(우월의식)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여 협조하는 마음이다. 그저 이해하고 협조하라고해서 안된다. 마음의문제이다. 서씨는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 협조를 지나 희생(비싸도 교포상점을 이용하라는)을 강요하고있다. 그러나 협조, 희생, 봉사, 단결등을 강조하는것이 너무도 판에 박은듯하여 잠결에 듣는 유성기 판처럼 염증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런 말이 잠재의식속의 이기심. 반발을자아내서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참된 협조의식(이타심)이 근원에서 감소되는 역할을 하지않나 생각되는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과이기심에서 나오는 상대 과소이기심의 요구이다. 자기의 과이기심 자체가 본인으로 하여금 희생봉사의 바탕을 못만들어 주고. 그렇지못한 바탕에서 다른요인 과이기심의 측면인 과명성심, 자만심, 또는 미소한 본래의 이타심등으로 기회 닿아봉사를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나 무라는 대상인 상대(교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기심과 명성심에서 서씨에게 과소이기심을 강요할수도 있다. "당신은 한인회 임원입장에서 아무 소리말고 일이나 조용히 할것이지, 무슨 전방진 소리냐"고 우리는 피차 남에게 잘 하라고 야단이지, 자기가 잘 하겠다는 표현은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 들이는데서 출발한다.

서씨의 글중 한인회 얘기를 했더니 "그깟놈의 한인회"하는식의 말을듣고 불쾌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물론 협조도 참여도 안하면서 비난만 하는것은 잘못 이겠으나. 그 잘못을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불신을 하지않을수 있을만큼 한인회 임원들이더욱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것이다. 불신할만 하다고 생각하여 불신하는교민들에게 불신말라고 할것이 아니라. 임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있는일을 더 많이 하여 저절로불신할 마음이 안나게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 글을 읽고있으면 50, 60대의 선배를 대하는 느낌이다. 선배들이 혀가 닳도록 읊어대던 잘못된 말들을 녹음기에 담아 두었다가 듣는 감상이다. 예를 들어(1)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는것 아니고, 명예를 바라서 하는것도 아니라는말. (2)시간과 돈을 뺏기면서도 교포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 (3)그들에게위로와 따뜻한 말한마디는못해줄망정 조그만 실수를과히 나무란다는 말. (4) 그런 사람은 어떤일도 못할사람 이라는말 등이다.

이것은 과이기심, 과명성심이라는마음의 병이 연출시키는 폐단일 것이다. (1) 영리나 명예를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말은 불필요한 말이다. 돈도 안생기고 명예도 아닌일을 왜 한단말인가? 싫으면 아니해야 할 것 아닌가? 남을위해 싫어도 한단말인가? 그렇다면 남위하고싶음이 싫음보다 크기때문에 하였단말일게다. 그렇다면 싫음이 아니라. 싫어서 한것이다.

그러면 싫음은 싫음에 포용되어 싹 사라졌어야 한다. 우리의 욕구상태가 잘못되어 있는것이다. 나 하고 싶어서, 그일이 명예로워서 했다면 피해의식이나 공치사, 생색의 마음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명예인 이다.

그러니까 영리를 위해하는것 아니나. 이타심으로봉사행위하는 이상. 봉사직에 있는 차제에 돈나가는것이 좋을 것이고(돈나가는 반이기작용 자체는 싫더라도) 좋은 이상 "내돈 써가면서"란 생색의 말은 나올수 없을것이며, 명예(자만심, 공명심 아닌 이타심 행위)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싶어하는것이니 명예로와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 희생, 봉사, 협조, 단결을 외치나 그렇게 안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병」때문이다. 내 생색내고, 남을 심히 나무람으로써 "나"가 잘할 수 없게되고, "남"이 잘할 수 없게 되는 "과이기심", "과명성심" 이란 마음의 병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외쳐 미움을 퍼치고, 희생, 봉사를 외쳐 자기 이익만을 생각케 되고, 협조를 내세워 불협조를 만들어 낸다. 갈등과쟁투를 일으키게 할 마음의 병이 바로 과이기심, 과명성심이며, 이의 표출현상의 하나로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자화자찬인 것이다.

(2)"시간과 돈을 뺏기면서" 라는 말.

자기의 명예행위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기꺼이 희사하는 것이지, 어째서 뺏기는건가? 그렇게 도둑맞는 기분으로, 억울타는 피해의식으로 그런 일을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떳떳할 것이다.

다만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봉사행위를 하는사람들에게 사소한 잘못을욕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피해의식(악감정의 도발요소)을 갖고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에 해롭다.

우리는 공직에서 일을하면서 남에게 잘하라고 강조적으로 설교하는 일이마치 높은 사람이 훌륭한 일치르는 것같아 너그러운듯이 보이나 가장 안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봉사를 할때 남이 알아주고 잘 따라주면 만족하겠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다. 사람들은 반대하게 마련이고, 잘 안따르게 마련이다. 옳아서 그럴 수도 있고, 틀리고 그럴 수도있는데, 틀리며 그러는 것이라 가정을 하더라도 이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면서 온건하게 비판을 해야 차츰 알아주고 따라주는 것인즉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한인회 임원의 가장 큰 임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굴고 잘 안따르고, 비방이나 하는 사람을 너그러이 포용하는 일 자체가 신성한 임무이니 만큼 그런 자기행위에 긍지와 만족을 느낄 일이거늘 반대로 교만하게 군다고 심히 나무라려 든다면, 또 나무라는데 효과를 보랜다고 돈 쓰고 시간낭비한다고 생색을 내려 든다면 점점 반감을 사게 하여 화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그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말.

이것도 얼핏 보면 좋은 말인듯 하나 엎드려 절 받기로 자기가 자기에게 잘 해 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자기의 명예직임을인식한다면 훨씬 차원높은사랑, 자유, 평등, 평화, 협동의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명예행위에 가치를 둘진대 누가 내게 찬사를 보내는 일이나 욕하는 일등에 만족의 기준을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나 협졸한 생각에, 인생가치와 명예가치를 두고 있지 않나 염려되는 것이다.

(4)"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하리라 필자는 못박고싶다"는 말.

물론 그같이 관용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낼 것도 사실이겠지만 필자 역시, 상대의 우월의식에 대한 자신의 우월사상반항의 실적, 감정반응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피차가 똑같은우월의식(과명성심, 자만심, 교만)의 마음을 의미 한다고 본다.

(계 속)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①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제 리버 오브 맨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행동할 수있게 되었다.

가꾸미가 자기 형이 떨어뜨린 총을 주워들고 다시 썰매로 돌아왔을 때, 주위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호숫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그는 흩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시 싸가지고썰매에 싣고 호수의 얼음위로 개들을 몰려서 강북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모든 살아있는것 중에서 이할미우트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죽어야 하는것이 마땅하고,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카쿠트의 캠프에서는 그 미친사람의 위험을 쉽게 제거시킬 수가 없었다. 샤만인 가꾸미는 사람의 손으로 쉽게 해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는 한동안 타지에 나가있었고, 카쿠트자신도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쫓아갈 용기가 없었다.

대신 카쿠트는 썰매를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리게 했다. "아주트의 아들 가꾸미가 미쳐 가지고 돌아왔다." 가꾸미가 돌아왔음을 전해들은 근방의 모든 마을 사람은 가꾸미가 흉악한 마술을 부릴것 같아서 공포에 사로 잡히게 되었다.

그후 겨우 이주일이 못가서 카쿠트의 동네에는이상한 병이 발생,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세여인이 한꺼번에 가슴에 큰고통을 느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자이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그큰 가슴의 고통은 강북쪽으로 혹은 작은 호숫가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동네로 단시일내에 퍼져가서 사실상 전지역으로 전염이 되어갔던것이다.

그 봄이 가기전에 전 지역 주민의 삼분의 일이 죽어버렸고, 이 알수 없는 병은 이사람들을 완전히 절망에 몰아 넣어버렸다. 강가에 모여살던 많은 캠프에서는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려 죽은 사람들을 묻는 일조차 힘들게 됐다. 오소리와 여우, 그리고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개들도 죽은 이할미우트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이 쪄갔다. 오직 몇안되는 남자들이 막아낼 수 없는 이 살인병으로부터 피하려고 평원의들판으로 흩어져 동네를 떠났을 뿐이다.

공포때문ㅔ 완전히 격리당한 곳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며가꾸미의 이름을 저주하고있었다.

이해의 겨울은 순탄한겨울이 아니었다. 그러나 봄이 오자 사람들은 쇠약해져서 기운이 왕성하진 못했어도 굶어죽은 사람은없었다. 그때 가꾸미가 그땅에 전염병을 몰고 왔던 것이다. 그 살인병은 그가묵었던 백인지역에서 그를따라왔는지, 혹은 그가 얼어붙었던 백인마귀의 얼굴을 보았다고 믿고 있는 그 작은 오두막집에서 왔는지, 바렌의 굶주리고 쇠약해진 사람들에게 옮아붙었던 것이다.

여름이 짙어가자 그 저역은 가꾸미가 돌아오던이른봄과는 사정이 아주 달라져 버렸다. 리버 오브맨은 전혀 인간의 그림자를 구경할 수 없게 되었고, 오직 강변에 아무렇게나 묻어놓은 사람 무덤들만이한때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후 해가 거듭하면서이 강가에는 이할미우트의 캠프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고스트 리버(귀신의 강)로 변하여 버렸다.

각동네의 모든 사람이 앓고 죽어갔지만 가꾸미는잘 먹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고통병을 자신이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앓아 눕지 않았다. 더우기 그는 이 비참한 광경을 관망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주하는 것을 보자, 자기는 생명을좌우할 수 있다는 무자비한 교만심으로 꽉 차있었다.

그는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마치 유령처럼 죽어가는사람들의 텐트를 마음대로지나다녔다. 그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죽은 사람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물건들을 취하고, 또 생존자들이 새 무덤위에 놓아둔 죽은 사람의 물건까지도모두 걸어가 버렸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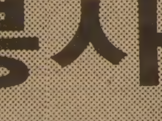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 $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본사 광고국
533-2361

三國志 266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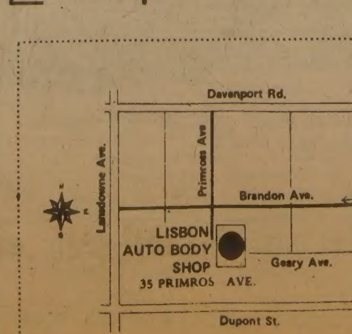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政府산하 22個기관도 縮小

部長級이상 10%줄여

事務職중심 機構정비 技術職은 그대로

商議·貿協·中小企協·韓國重工業·輸出工團·紡協등

정부는 大韓商議, 貿易協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韓國重工業, 貿易振興公社, 綜合化學등 산하 22개단체, 기관및 기업에 대한 조직정비를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행정기구축소에 뒤이어 단행되는 정부산하 기관조직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출자, 출연 또는 지원을받는 기관및 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업 22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하여 행정부의 기구축소에 준하는 기구및 인원을 정비할 방침이다.

年末까지, 百여補助기관도

정부는 이밖에도 각부처별로 1백여출자, 출연및 보조기관에대한 기구정비도 아울러 단행할 방침인데 이번기구는 축소대상으로 설치된 公企業評價調整委員會의 경영평가에 따라 조직및인원을 조정토록할 방침이다.

27일 관계당국에서 밝혀진 산하기관기구 축소방안은 산하기관내부 또는 산하기관상호간의 중복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내부의 난비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직 사무직을 중심으로 기구를 정비하고 기술직은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한방침이다. 특히 부장급이상의 고위 관리직은최소한 10%이상 기구를 축소토록 할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주도형경제운용방향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1백20여개에달하는 상공부산하 임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어있을때는 원칙적으로 업의단체에 업무를 위양하고 정부투자기관은 권한이 위양된만큼 기구를 축소토록 했다.

정부는 내주중으로 기구축소지침을 해당업체에 시달, 연말까지 기구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산하기관 조직정비와 관련, 무역협회출연기관인 코리아헤럴드, 海外學現동재단, 한국종합무역전시장, 고려무역, 한미경제협의회, 상사중재원도 산하기관조직정비에 기구를 정비하고, 새로설립될 산업경제기술연구원도 정비원칙에입각해서 기구를 만들도록할방침이다.

이밖에 종합화하 계열비료회사는경제기획원에서추진중인 비료회사 통폐합의 추이를 보아 단행키로했다.

조직정비 대상에 포함된22개기관(기업)은 다음과같다.

▲大韓商議▲貿易協會▲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貿易振興公社▲韓國重工業▲國際合化學및 5개계열회사(南海화학·鎭海화학·湖南화학·東海펄프·한주)▲中小企業진흥공단▲한국수출공단▲[illegible]▲한국생산기술사업단▲韓國生産性本部▲디자인포장센터▲방직협회▲섬유산업연합회

政府기관파견 公務員에

業務감독·지휘는 못하게

정부는 組織改編과 관련, 무역협회등 22개 정부산하단체와 연구기관에 파견근무케된 공무원들이 파견기관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수없게 할 방침이다.

金庸來총무처차관은 27일하오 22개 정부산하단체와연구기관의 총무담당이사회의를 소집하고「정부산하단체및 연구기관파견공무원 活用指針」을 示達, 이같이 밝히고 파견공무원은 정부와 파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기획 조사 연구 업무개선 심사분석 감사 민원등의 분야에 참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教育稅法案 통과

財務委서表決 財産稅대신 金融·보험附加

국회는 27일하오 內務, 財務, 經科, 國防, 文公, 保社등 6개常委의 전체회의와 아울러 商工, 建設委의 小委를 열고 각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각종稅法案과 예산附隨법안및 일반案件과 請願을심의했다.

財務委 教育稅法案을두고 신설에 찬성하는 民正·국민당과 이에반대하는 民韓黨및 議政同友會의원들간의 賛反토론을 거친뒤 表決에 붙여 재산세附加대신 금융보험업에 附加하는 小委의修正案을 찬성16, 반대1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金昌根, 金文元, 朴完奎(이상民韓), 李洙鍾, 林采洪의원(議政)등 4명이 반대토론을 벌였고 金鍾仁(民正), 趙炳鳳의원(국민)등 2명이 찬성토론을 벌였다.

한편 財務委는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전화세법개정안등을 정부原案대로, 국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酒稅법, 국민은행법개정안에대한 小委修正案을 채택, 통과시켰다.

內務委 「서울特別市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經科委 주식회사법중 개정법률안」과「한국기술개발 [illegible]

財産 등록대상 범위싸고 論難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심사6人小委 [illegible]

北傀、서울五輪·亞洲경기不參

【東京=宋孝彬특파원】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 집행위에 참석한 北傀올림픽부위원장 金德俊은 요미우리신문기자와 만나 86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北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金은 北傀선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증이 없기때문이라고 생떼를부렸다.

金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不참에 아시안게임을 열 [illegible]

豫算削減조정難航

국회豫決委는 27일밤 늦게 [illegible]

慶州서 初期鐵器시대遺物 發掘

新羅建國年代 규명중요資料

구리거울·쇠도끼·土器등

BC202年代

新羅건국 이전에 慶州지방에서 발달했던 초기鐵器문화의 유적이 처음으로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慶州市朝陽洞에 있는 先史유적지를 발굴조사중인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단(단장 韓炳三)은 27일낮 중국前漢(BC 202~AD 8)대의 日光鏡인 구리거울(銅鏡)을 비롯, 각종 철기와 토기등 귀중한 유물을 대량출토함으로써 학계의 오랜 숙원이던 先史문화→新羅문화사이의 過渡期문화의 정체규명과 연대고증, 더 나아가 新羅국가형성연대를 현재의 학설보다 더올려서 추정해야 할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얻게되었다.

조사단은 이날 朝陽洞유적중에서 土壙墓10基와 甕棺墓 6基를 노출시킨 후 銅鏡4점, 쇠도끼(鐵斧)5점, 철제大型칼4점, 小型칼4점, 고대화폐(鐵鋌)8점, 靑銅製 칼장식및 팔찌4점, 토기 20여점등을 일괄 수습했다.

조사단장인 韓炳三박물관장은 銅鏡과 劍類, 土器등이 동시에 출토된것은 발굴사상 처음있는일이라고 밝히고 특히 前漢代 銅鏡과 鐵器의 대량출토로 新羅국가형성 이전의 문화교류와 사회구조를 파악할수 있게 됐으며, 이제까지 AD4세기무렵으로 추정해온 新羅국가형성의 시기를 최고 1세기까지로 다시 추정하지않으면 안될 자료를 얻게된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출된 土壙墓는 길이3.5㎝, 폭1.2m, 깊이2.7m이며 어린이의 무덤인 甕棺墓는 크고작은 2개의 옹기를 합친것으로 길이1.4m, 폭60㎝이다.

朝陽洞 鐵器문화유적은 慶州-蔚山 국도변동쪽의 聖德王陵서쪽 2백m지점에 위치해있으며 약5천여평의 보리밭에 흩어져 발굴되고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79년부터 이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 올해가 제4차발굴이었는데 慶州부근의 前新羅유적이라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한반도 남쪽의 鐵器문화유적으로서도 매우 귀중한학술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평가된다. 【慶州=[illegible]】

◇前漢시대(BC202~AD8)의 日光鏡으로 판명된 銅鏡.「見日之光天下大明」의 글씨가 새겨져있다. 慶州朝陽洞 철기문화유적지에서 발굴돼 新羅건국의 연대를 재검토해야할 자료로 평가된다(上). 銅鏡, 鐵器유물들과 함께 출토된 黑陶항아리(下).

해설

三國史의「傳說」부분史實로確認할 중요자료

朝陽洞철기유물의 대량출토는 우리역사에서 베일에 가려진 西紀元年代의문화를 규명할수있는 자료의출현이라는 점에서 큰 뜻을 지닌다.

우리역사에서는 BC2세기에서 AD3세기에 이르는 無文土器-新羅시대의 移行期를 原三國시대, 또는 金海期로 불러왔으나 실제로 이시대를 본 학자들은 5세기초로 보 [illegible]

[illegible] 그것을 『설화』로 규정해온 [illegible] 紀元이전(1代王에서 16代王까지)에 대한 三國史記기록을 說話로 돌려버리고 있었으나 이번에 출토된 土壙墓가 1세기때의 고분으로서 [illegible] 관고분이며, 新羅초기의 고분들과 다름없는 副葬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新羅국가형성의 시기설정에 대한 再檢討가 불가피하게 된것이다.

특히 西紀元年代에 이미 慶州땅에 화려한 鐵器문화가 있었음이 다량의 유물출토로 확인된것은 이제까지 傳說이나 說話로만 여기고「歷史」에서 제외해온 新羅건국에 관한 기록들을 다시 刮目상대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고 할것이다. 【日】

모범勤勞者 20명에 全대통령, 晩餐초대

全斗煥 대통령은 27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金道濟씨(36·東亞건설산업주식회사 정비공)등 모범근로자20명을 靑瓦臺로 불러 만찬을함께하며이들을격려했다.

이에앞서 全대통령은 우드·캐롤라이나 대학의 넬드·웨더비 교수와 서울大 安浩相교수등 통일문제 국제연구토론회에 참가한 국내외학자 14명을 접견, 다과를베풀고 환담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의 李範錫사무총장과 金相球사무차장이 배석했다.

◇柳炯鎭교수

대한 教聯會長에 柳炯鎭교수 選出

대한교육연합회의 새회장에 柳炯鎭박사(56·漢陽大교수)가 선출됐다.

대한교련은 27일하오 교련강당에서 제40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돗자리사건으로 물러난 鄭範錫회장의 후임에 柳박사를 선출했다.

◇新任 柳會長 약력 ▲1949년 서울사대 졸업▲58년 미국 하버드大 대학원 교육학박사▲59년 淑大교수▲74년 漢大교수▲74년 서울시교육회회장▲81년 학술원회원.

日, 50억弗절충모색 對韓 安保經協규모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오는 30일 [illegible] 계기로 60억달러 단행 [illegible] 대한경제협력을 에워싸고 [illegible]

社會漫評

뭣좀 安定돼가는가…하면…

地平線

[illegibl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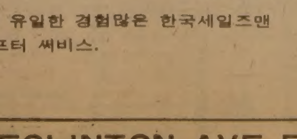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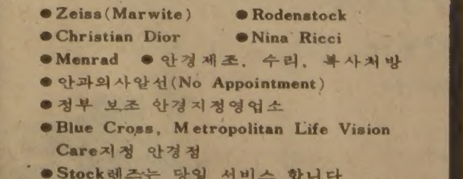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성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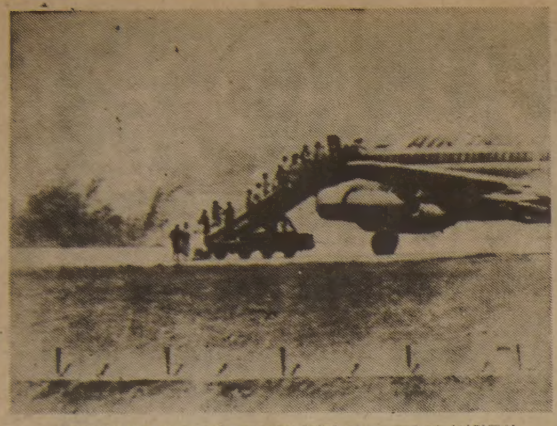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
전화 : 531-2236(B), 282-2369(R)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1½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½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세이셸群島에 白人傭兵 공포



◇세이셸群島에서 더번으로 공중납치된 인도 에어·인디아항공사 여객기의 승객및 승무원 79명이 더번공항에서 납치범들에 의해 석방되어 여객기에서 내려오고있는모습。 【요하네스버그 (南阿共) 26日AP電送=聯合】

政府軍과 交戰끝에 退却

24시간通禁… 靜寂감돌아

【빅토리아(세이셸군도)27日路透=聯合】세이셸군도정부는 백인용병과 정부군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끝난후 세이셸군도전역에 24시간동안 통행금지령을 선포했다.

세이셸군도 국방성은 26일밤 백인용병들이 스와질랜드에서 출발하는 정유여객기에 탑승, 이곳 국제공항에 내린후 약1백명을인질로 잡고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이셸군도 국방성은 정부군을 공격한 백인용병수가 1백명이 아니고 45명이라고 정정했다.

국방성은 이들 용병들은 자동화기와 로키트 발사장치로 무장했었으며 치열한전투를 치렀는데도 희생자수는 몇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취한 통행금지령으로 이곳 거리에는 경찰과 민병 그리고 군인들만을 제외하고는 누구의통행도 24시간동안 허락되지않았다.

성명은『정부치안당국은 통행금지령이 세이셸군도 국민들에 불편과 불안을안겨줄것을 잘알고있으나 이 조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명은 또 몇몇용병들은 인도항공사소속 보잉707을 납치, 南阿共의 더반으로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번으로부터 들어온 보도들은 양측에 수갑을 찬 44명의 남자들은 비행기로 떠났다고전했다.

국방성은 성명을통해 소수의 자국시민들이 작전에 연관되었다고 밝히고『이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색출·응분의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곳 서방외교관들은 알베르·르네 대통령이 이끄는 세이셸의 좌익정권에 반대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관리들은 공항관제탑과 공항건물이 전투로 크게 파손됐다고말하고 폐쇄된 공항은 2~3일이내에 개방되기는 불가능할 것같다고 밝혔다.

쿠데타모면 세이셸

76년 英統治벗고 獨立

【파리26日AP=聯合】지난25일의 쿠데타기도가 분쇄된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은 지난76년 영국의통치를 벗어나 독립했다.

독립후 집권한 제임즈·만참 대통령은 지난 77년 英연방회의참석차 訪英중 당시 수상이던 알베르·르네 現대통령에 의해 축출됐으며 르네 대통령은 그의 지지기반인 人民聯合黨을 중심으로한 단일黨인 人民進步戰線이 지난 79년 결성돼 활동에 들어가기까지 포고령으로 이나라를다스렸다.

르네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親만참 쿠데타기도등을 저지해가며 자신의 온건사회주의노선을 착실히 다져오고 있는데, 지난 79년에는 젊은층에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이들의 격렬한 反정부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소련과 해운협정을 맺고있으며 아프가니스탄및 캄보디아의 親蘇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디에고가르시아美기지에 대처할 기지화보류의 해결안이 되어있는 소련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나라에 정박하는 외국선박수를 국적에 관계없이 제한하여 대외중립노선을 더욱 공고히하기도 했다.

92개군도를 바탕으로한 관광업 어로수입에 국고를의존하고있는 이나라는 상당히 건전한 경제구조를유지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南阿共서 국제테러

알제리·기니등 아프리카 分裂획책"

세이셸群島 관련

【알제27日AP=聯合】샤들리·벤제디드 알제리 대통령은 27일 실패로끝난 백인용병들의 세이셸군도공격은 南阿共과 관련된 국제테러리즘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알베르·르네세이셸군도 대통령에 메시지를보내 알제리가 세이셸군도 정부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南阿共은 대륙의 완전해방을위해 노력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분열을 노리고있다고 비난했다.

르네 대통령은 외국세력이 프레토리아를 책략적으로 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위치에 있는 세이셸군도같은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년전 역시 백인용병의공격을 받았던 기니도 이날 이번사건에 크게 분노, 南阿共을 제재하는 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南阿共의 요하네스버그에 머무르고 있는 콩고용병작전의 前지휘자 조지·쉬퇴더소령은 이날 이곳기자들에게 지난몇년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자신에게 수차례접근, 세이셸침공을 요구해왔으나 자신은 그 침공작전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셸침공이 南阿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은 세이셸 침공준비에 가담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이셸군도에대한 백인용병의 공격이 있은 직후 보도들은 용병들이 南阿共과 미국·영국·뉴질랜드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고밝혔었다.

"核戰爭서 人類를 救하자"

東京서 국제科學者회의… 核철폐 논의

「러셀·아인슈타인宣言」재확인

破滅의길 防止촉구

◇런던에 모인 歐共市(EEC) 정상들이 정상회담에 앞서 엘리자베드英여왕과 오찬을나눈뒤 버킹검궁전을 거닐고있다。 女王의양옆에 슈미트西獨수상과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이 걷고있다。【런던26日UPI電送=聯合】

【東京26日AP=聯合】核무기철폐방안을 논의하기위한 국제심포지엄이 1명의 미국물리학자를 포함한 1백명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석한가운데 26일 東京에서 개막됐다.

일본과학협의회가 일본의 5개 대학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후시미·고지 일본과학협의회회장은 연설을통해『核전쟁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신뢰할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우리 과학자들이 당면한 긴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사흘간 계속될 이심포지엄은『러셀―아인슈타인선언』의 현대적 의미를 토의할 예정이다.

버트런드·러셀과 알베르트·아인슈타인은 지난 1955년 다른 9명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核위협을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과학자들이 모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러셀―아인슈타인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이 선언은 또『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행복과 지식, 그리고 지혜의 계속적 발전이 우리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우리는 인간으로서 인류에 대한 애착을 갖기를 인간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었다.

이 선언은 이어 인간들이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새로운 지상낙원을 향하는 길이 열려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류는 지구파멸의 위험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한편 이 선언에 서명했던 두명의 생존과학자중 한사람인 조셉·로트블러트씨는 녹음된 메시지를 통해 과학자들이 核무기경쟁의『선동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지금 자발적으로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각도에서 시간과 재능과 머리를 쏟고있는 과학자들이 있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東西軍縮등 논의

歐共市10개국頂上회담개막

【런던26日路透=聯合】영국을비롯한 歐共市(EEC) 10개회원국지도자들은 26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EEC의 예산개편문제와▲東西군축협상▲中東平和문제를비롯한 일련의 국제문제를 협의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이 첫날 회의에서 2백50억달러에 달하는 EEC의 예산을 사회와 지역개발에 보다 많이 책정하는 동시에 농업분야에대한 지원에서 EEC예산을 사용할것을 제의했으며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은 내년20억달러의 분담금 삭감요구에도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외교관리들이 전했다.

EEC지도자들은 회의 이틀째인 27일 안드레아스·파판드레우 그리스수상의 EEC탈퇴위협을 협의할 계획이며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최근 西獨방문결과에 대해서도 슈미트수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레이건등 高位관리 暗殺목적

리비아諜者 美에入國"

ABC방송 報道

【뉴욕27日AP=聯合】레이건대통령을 비롯 미고위관리들의 암살임무를 띤 리비아첩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미안보관계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미ABC방송이 27일 보도했다.

ABC방송은 이름을 밝히지않은 소식통들을 인용, 월리엄·웹스터미연방수사국(FBI)국장의 지시에따라 리비아첩자들의 수색작전의 일환으로 캐나다국경지대 특히 디트로이트지역에대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ABC방송은 또 FBI요원들이 다른사건은 뒤로 미루고 방첩담을 경성, 리비아첩자수색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아는 리비아의 실력자 무아마르·가다피가 레이건대통령 암살단을 미국에 파견했다는 보도를부인해왔다.

中共, 核물질輸出 첫시인

對南阿共 판매설은 否認

【北京26日AP=聯合】中共당국은 26일 中共이 핵물질을 수출하고있음을 처음 공개적으로 시인했으나 南阿공화국에 直·間接으로 핵물질을 판매했다는 워싱턴·포스트紙보도는 단호히 부인했다.

이날 뉴욕의 유엔주재 중공대표부의 성명을 인용하여 新華社통신은『중공이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과 관련, 국제간의 협력을위해 제한된 量의 핵물질을 수출하는것은 전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했다.

新華社통신은 이어『우리는 모든 핵물질구매자들로부터 그들이 중공의 핵물질을 제3국, 특히 南阿共과 이스라엘에 공급하지 않을것이며 또한 평화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전용하지않는다는 보장을받고있다』고 강조했다.

女學生데모隊에 발포

아프간蘇軍 5명死亡 12명負傷

【이슬라마바드26日UPI=聯合】아프가니스탄 침공소련군이 최근 소련접경지방인 발크州의 마자르샤리프시에서 정부의 징집명령에 반발, 항의 시위를 벌이고있는 수백명의 여학생들에게 발포, 5명이 죽고 12명이 크게다쳤다고 아프간반군대변인은 밝혔다.

여학생들은 親蘇 카르말정부와 소련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들고『회교만세』등 회교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이날 시위로 1백80여명의 여학생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叛軍소식통들은 마자르샤리프시 여학생들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는데 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이 허용된 일부 여학생들은 체포된 시위주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출감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港口都市서 彈藥적재소 爆發

【하이파(이스라엘)26日UPI=聯合】이스라엘의 항구도시 하이파 북서쪽의 한 탄약집적소에서 26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게릴라에의한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폭발사건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인근공장과 아파트의 시민 수백명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큰 소동을 빚었다.

波정부·勞組 비난攻防 격화

【바르샤바26日路透=聯合】폴란드정부와 자유노조는 26일 폴란드 국내 경제정책을 심의·감독할 중립적인 경제감리기구 설치에 합의하지 못한채 상호 비난공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자유노조관리들은 이날 폴란드共産黨중앙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정부와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그이유는 정부측의 무관심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측협상대표 스테판·올조프스키는 黨기관지 트리부나·루두와의 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대해 거부권을 요구한 자유노조측제안이 국가의 단결을 와해시킬 우려가있는것이라고 비난하고 이같은 요구는 자유노조가 폴란드에서 공산당의 우위를 명확히 인정해야만 토의가 가능할것이며 그렇지않을경우 다가올사태는 대결과 유혈분이라고 경고했다.

자유中國5년만에 대규모軍部개편

【臺北26日聯合=聯合】蔣經國자유중국총통은 대폭적인 改閣에 이어 26일 5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軍지도부개편을 단행했다.

蔣총통은 이날 軍지도부개편에서 國防部長으로 기용된 宋長志참모총장후임에 郝柏村육군사령관을 임명했으며 육군사령관에는 前육군단장 치앙·중·린장군을 기용했다.

또 臺灣경비대 사령관에는 헨·소후·산 육군부사령관(61)을 임명했는데, 그는 臺灣출신으로서는 최초의 3성장군이다.

클리프리처드 傳記 英BBCTV 放映

★…20여년동안 로큰롤의 왕좌를 지켜온 클리프·리처드(41)의 전기「클리프는어떻게 장수를 누리고 있는가」가 英國BBCTV에서 특집으로 제작돼 지난23일 첫회가 방영되어 팬들의 열띤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LP음반 D경 감독인 노먼·스톤이 1년여에 걸쳐 만든「클리프」는 모두 4회로 나누어 방영예정인데 첫회는 58년 데뷔당시에 초점을 맞추었고, 2회는 그의 성공적인 자선음악회와 사생활이 소개될 예정.

컴퓨터犯罪 보상해줍니다

英로이드社 銀行등상대 新種보험개발

警察 손못쓰는 高等수법 全世界서 被害 날로 늘어

세계적인 大보험회사인 英國의 로이드보험회사는 전자기기사용범죄가 급증추세를 보이고있는데 착안, 컴퓨터사기및 절도에의한 잠재적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종컴퓨터 보험정책을 펴기시작했다.

세계각국의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지부 책임자들에 따르면 컴퓨터는『電子전성시대』에 편승,『새로운 국제범죄의 세계』를 열어놓았다.

로이드社의 존·데이비드대변인은 AP통신에『컴퓨터사기는 잠재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제범죄중의 하나가됐다』고 털어놓았다.

데이비드 대변인은 컴퓨터범죄를 액수로 추정할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시큐리티·퍼시픽 보랑社의 시헨씨는 수백만달러를 ... 자신의 무용담을 뽐낸 것이 화근이었다. 즉 그를 의심한 한 친구가 수사당국에 문제의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힌것이다.

로이드社의 신종 컴퓨터보험정책은 뉴욕의 어빙신탁은행을 대상으로 마련된것이 효시였다고 로이드社의 3大브로커會社중 하나인 스튜어트·라이트손社의 조지·존즈대변인은 밝혔다.

로이드社 브로커인 C·T·벨씨는『그러나 개인용컴퓨터의 출현과 은행내부체제에대한 불법적인 염탐능력은 도난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로이드社는 신종 컴퓨터보험의 신설을 발표하면서『70년대초 많은 은행들의 자금이전 작업이 텔레타이프로부터 전자체제로 전환됐다. 이같은 작전은 일반인들의 무지때문에 은행내막에 대한 비교적 안전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스위스에 넘겨준 1백2억달러의 엄청난 돈이 컴퓨터조작에 의해 감쪽같이 도난당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범죄가 발생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사건의 범인인 컴퓨터고문 스탠리·M·리프킨(32)은 지난79년 절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리프킨은 당시 은행측 컴퓨터 암호를 절취, 거래내역을 ... 사용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겨냥한것이라고말했다.

... 러짜리 컴퓨터범죄의경우 피해자측이 공신력의 손상을우려, 발표를 꺼리기 때문에 아예 보도조차 되지않고있는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트·라이트손社의 존즈대변인은 미국내에서만도 매일 6천여달러의 巨金이 컴퓨터에 의해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신종 보험정책들은 은행과 주식브로커, 저축, 대부협회및 여타 각종 금융기관들을 겨냥한것이라고말했다.

파리에 본부를둔 인터폴은 지난79년 회의당시 컴퓨터범죄문제에 온통정열을 쏟았는데 회의참석대표들은 경찰력이 장비면에서 컴퓨터범죄를 도저히 따라잡을수없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했었다.

런던에 있는 영국경시청본부의 한 대변인은 여타 컴퓨터범죄자들의 경우 은행내부를『이리저리 빈둥거리다가』암호를 절취했다고 말했다.【런던AP=聯合=루이스·네빈】

메아리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것은 주위의 생활환경과 책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최근의 몇가지 표본조사가 이사실을 뒷받침한다.

국민학교 저학년생들이 텔리비전 광고를 보고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는것은 장난감이 제일많다고 한다. 그다음이 학용품, 운동기구, 먹을것 그리고 책과 잡지다. 이어린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특히 어머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의 존재와 텔리비전이 어린이의 성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학교 교과서 전과정을 통해 이순신장군의 이야기는 9번 등장한다. 30여년이나 교단에선 한 교직자가 조사한바로는 충무공이 국민교어린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사의 인물로 꼽혔다. 교과서라는 「책」을 통해 사고가 형성되어갔을 알수 있다.

교양서적엔 한눈(?) 조차 팔 틈이 없이 교과서와 학습참고서에 매달려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면 주머니 사정이 책과의 접근을 어렵게한다. 한달 3만~6만원정도의 용돈으로는 2~3개월에 책한권 사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사회에 나오면 독서경향은 안이하고 감각적인것을 좇는다. 우선 읽기에 부담이없고 유행적이며 업무에 필요한것만 골라 읽는다. 골치아픈 古典은 제쳐두고 서부영화를 보듯 후다닥 읽고 넘어가는 독서자세다.

올해도 하루평균 30~40종의 서적이 나왔지만 지난 여름엔 서울의 서점 50여개가 맥주집으로 탈바꿈했다.「사철불황」이라는 출판업계의 비명이 엄살 같지만은 않다.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도「良書의 등불」은 반짝이고 있다. 한국일보社가 제정한「한국출판문화상」이 벌써 22돌을 맞는다. 어제 아침 지상에 펼쳐진 출품도서 퍼레이드를 대하니「81년정신의 추수」를 거두는 감동에 잠기지 않을수 없다. 출판문화상은 예술·연예·스포츠상처럼 스타탄생의 환희가 아니고 조용한 지적전진과 이성의 성장을 보여 주는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출판문화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시책을 펼것으로 기대 된다. 良書가 많이 출간되고 그런책을 읽는 독서층이 늘어나야 문화국민의 자부심도 높아진다. 한국출판문화상은 문화국민의 指標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한국出版文化賞

◇파리밤무대수놓는 英댄서들

파리의 有名한 나이트클럽 글레이지·호스公演에서 아름다운 춤의 造形美를 연출하고있는 6명의 英國댄서. 이곳에는 프랑스국적의 댄서10명을 위시해 美國6명, 폴란드 蘇聯 스위스 유고 체코 美國등이 각각1명씩이며 混血댄서등 모두24명이 固有의 춤을선사하고 있다고.【키스톤=聯合】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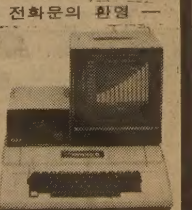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리
☎ : 533-2361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가의 다자사일)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FBI、한국인 介入가능성 捜査

物票에 한국受取人·住所 명확히記載

암호판독…銀行내부 提報있는듯

犯行장소 護送社보관중·寄着地의심

【뉴욕=金泰雄특파원】 2백만달러증발사건을 수사중인 미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반은 이 사건에 한국인공범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범인들은 한국외환은행과 미국 리퍼블릭내셔널뱅크(RNB) 사이에 오간 달러구매작전암호를 정확하게 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내부에 제보자가 있을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리퍼블릭 내셔널은행의 현직행원이나 전직행원과 함께 한국측행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가 있을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현금수송작전의 과정을 알위치에있는 수송관계회사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RNB에서 케네디공항까지 문제의 달러를 현송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호송원4명등 관계자가 이미 조사를받았으며 또 2명의 在美KAL 직원도 조사를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곳의 한 관계자는 돈이가는 가짜행낭에 붙었던 범인자신의 물표에 한국측 수취인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점은 범인중에 한국쪽사정을 잘아는자가 끼어있거나 한국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것이라는견해를 밝혔다.

그물표는 노란색종이 바탕위에 서울鍾路區貫鐵洞 한국외환은행 귀하라고 인쇄된영문글씨와 수취인 윤범씨(BEOMYOON)의이름, KAL 097기편, 출발시간등이 정확히 타이프된 흰색종이딱지가 붙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곳 금융가에서는 문제의 달러가 케네디공항에서 KAL에 실리기전 증발됐으리라는 추정과함께 기착지인 알래스카의 패어뱅크스공항의 기착시간사이에 이루어진 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쪽 사정을 잘아는자이거나 한국계공범이 있을 경우 범행여건이 어느곳보다 좋은 패어뱅크스 공항을 고려 할수도 있지않는가고 지적했다.

한편 패어뱅크스 공항내에 KAL사무소 관계직원과 경비경찰관등이 이와관련, FBI의 조사를 이미받았던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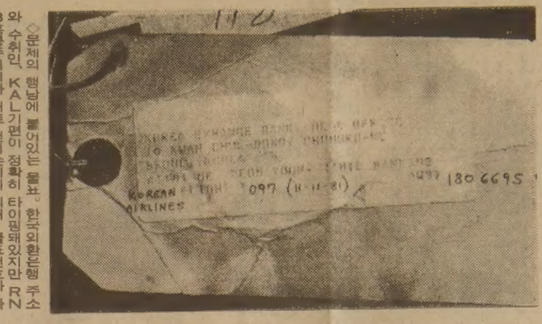
한편 FBI측은 현금수송을 맡았던 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AEI)가 리퍼블릭·내셔널·뱅크(RNB)에서 현금을 인수받은 이후에 바꿔치기가이루어졌고▲KAL기상에게 현금이 인도된시간이 RNB와 AEI간에 약전한 시간보다 55분간 늦게 넘겨졌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AEI가 지난10일하오 2시께 RNB에서 은행인계책임자 앨라토씨로부터 행낭을 [illegible] 사실로 드러나 AEI의 행낭인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10일하오4시30분보다 2시간30분이나 빨랐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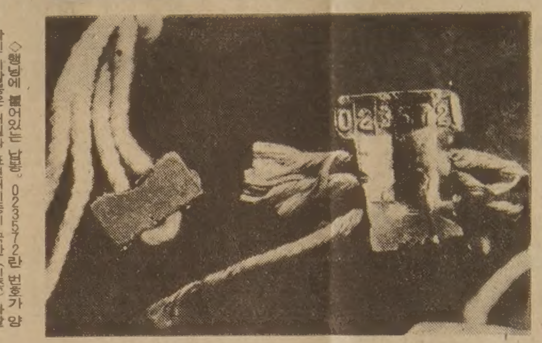
이같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수사당국은 ▲AEI가 행낭을 넘겨받아 KAL기에 인계하기까지의 11시간55분동안과 ▲KAL이 행낭을 인수받아 알래스카의 패어뱅크스 공항에 기착중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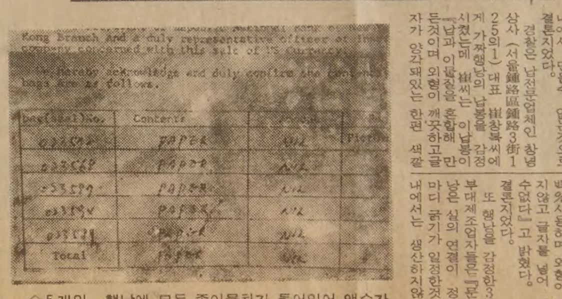
AEI가 RNB로부터 인수받은 행낭이 바꿔치기됐다는것은 RNB와 AEI가 작성한 현송화물 인도인수증에서 나타났다. AEI가 RNB로부터 행낭을 인수받을 당시에는 5개행낭의 무게가 46.1파운드로 정상이었으나 한국외환은행이 KAL로부터 인수받아 관계자들이 입회한가운데 달아본 행낭무게는 36.96파운드로 9.14파운드나 가벼운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AEI가 RNB에서 행낭을인수받을 당시에는 진짜돈이었으나 그이후 AEI회사가 보관중이거나 또는 KAL기가 거친 두곳의 공항에서 증발됐다는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제의 행낭에 붙어있는 물표。한국외환은행 주소와 수취인, KAL기편이 정확히 타이프돼있지만 RNB홍콩주재이사 커트·앤더슨씨에 의해 물표번호가 가짜임이 밝혀졌다。


◇행낭에 붙어있는 납봉。 023572란 번호가 양각된 이납봉은 재질과 표면처리등이 국산(왼쪽)과달라 미국에서 만든것으로 보인다。



◇5개의 행낭에 모두 종이뭉치가 틀어있어 액수가 無(NIL)임을 확인한뒤 입회인들이 서명한 확인서류。

행낭·납봉·白紙감정

한국生産不能 판명

2백만달러증발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시경은 27일 문제의 행낭5개가운데 국내에 남아있는 1개를 감정한결과 이행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것이고 납봉과 백지도국내에서 만들수 없는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납전문업체인 창녕상사(서울鍾路區鍾路3街125의1) 대표 崔창록씨에게 가짜행낭의 납봉을 감정시켰는데 崔씨는 이납봉은 납과 이물질을 혼합해 만든것이며 외형이 깨끗하고 글자가 양각돼있는 한편 색깔은 취색에 검정색이 혼합돼있는데 국내생산품은 납을1백%사용하며 외형이 깨끗하지않고 글자를 넣어 제조할 수없다』고 밝혔다.

또 행낭을 감정한3개국내부대제조업자들은 『문제의행낭은 실의 연결이 정교하고 마디 굵기가 일정한것으로국내에서는 생산하지않고있으며 특별주문생산이 가능하지만 수개월이상걸릴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조지제지(서울中區水標洞27의1) 전무 金남식씨는 가짜돈의 지질을 감정한결과 『행낭안에있던 종이는 제조때 활석가루를 5%이하로 넣어 광도가있고 앞뒤면의 차이가없는 모조지로 제조방법등으로봐 미국산이틀림없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활석가루를 25%넣어 모조지를만들기때문에 행낭에든 종이와 같은 색상을낼수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결과를 미국FBI에 통보했는데 미국수사기관과 RNB관계자들도 이감정결과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KAL 조종실에 安全金庫 없었다

【로스앤젤레스支社】 2백만달러의 현금 증발사건에서현금을 수송했던 대한항공(KAL) 097화물기 조종실에는 따로 안전금고가 설치되어있지않았음이 밝혀졌다.

KAL측은 지난해까지 외화 현찰수송을 의뢰받았을때 여객기를 이용해왔으나 여객기는 도중에 기착하는 지역이 많고 현금수송사실이 알려질경우 비행기의 공중납치등 위험성이 많아 올해부터 화물기로 대체한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화물기의 조종실에는 안전금고시설이라곤는 따로없으며 조종사석 오른쪽뒤의 비상탈출구옆 공간에 현금행낭을 그대로 쌓아둔채 운반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KAL은 이번2백만달러 증발사건을 계기로 KAL이 현금을 수송하고있었음이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 현금을 따로보관한 안전금고등 특수시설의확보, 공안원의 법무부재치원들을 서두르고 있으며 당분간 KAL이 현금수송을 거절하는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在美KAL직원도 조사받아

【뉴욕=金泰雄특파원】 美貨2백만불 증발사건을 수사하고있는 미국FBI특별수사반은 최근 케네디공항에 근무하는 대한항공(KAL)한국인직원 8명에대해서도 조사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직원들은 FBI가언제, 어떤방식으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말할수없다』고밝히고 다만2백만불 사건에관해 조사를 받았다고만 말했다.

한편 뉴욕경찰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직 FBI로부터 구체적인 협조요청이없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있다』고 밝히고 『FBI가 지원을 요청해올경우 이에응할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용물은 모두白紙"

로이드保険대리점 協成海運, 확인書類공개

영국 로이드보험한국대리점인 協成海運은 27일 외환은행측이 현금2백만달러 대신 백지뭉치가든 행낭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확인한는 자리에 입회한 리퍼블릭내셔널뱅크홍콩사무소, 協成海運, 대한항공및 경찰관계자들이 서명한 서류를 공개했다.

지난13일자로 작성된 이서류는 외환은행측이 「미화2백만달러 구매계약」과 관련, RNB홍콩사무소앞으로 보내는 「영수증」양식으로 2장의 타이프용지에 작성돼 있는데 첫장에는 문제행낭의개봉과정과 내용물을 확인한결과를 밝히고 다음장에서는외환은행대표로서 鄭運暎외환부장이 서명하고 입회인으로서 RNB홍콩사무소이사 커트·앤더슨씨, 協成海運 金某부장, 대한항공 박상방수입화물과장, 서울中部경찰서경비계장 金正彬경감등 4명의 관계자가 서명해놓았다.

이 영수증에서 외환은행은 본점이 KAL 097편으로 『81년11월12일 RNB 뉴욕 보낸 현금 2백만달러가 든 5개의 행낭을수령, 이중 봉인번호 023572인 행낭을 외환은행 사무실에서 개봉한결과 백지뭉치로 차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일 RNB 홍콩사무소에 긴급 텔렉스로 이사실을 통보했으며 13일 RNB대표인 홍콩사무소의 커트·앤더슨과 보험회사 대표 입회하에 나머지 4개행낭을 개봉했다』고 명시했다. 또 봉인번호는 023568, 023587, 023594, 023589로 5개행낭의 내용물은 모두 종이이며 금액은 「0」이라고 적혀있었다.

교회헌금 털다잡힌 犯人들

護送車타다 탈주소동…잡혀

26일 하오8시30분께 서울지검 南部지청 구치감에서 永登浦구치소로 호송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금탈취미수사건의 피의자 金泰楠군(20·주거부정)이 감시하던 경찰관을 밀어내고 달아났다가 2시간30분만인 이날 오후11시께 서울江西區本洞404 간이음식점에서 붙잡혔다.

金군은 이날상오9시께 서울永登浦경찰서에서 공범 鄭龍(26)·張基弘(38)·金明九씨(31)등과 함께 南部지청으로 송치돼 검사의 조사를받고 구치감에 수용돼있다가 다른피의자들과함께 永登浦구치소로 호송되는 버스에 올라타는순간 느슨하게 묶인 포승을벗기고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었다. 이때 같은포승에 묶여있던 공범 鄭씨도 함께 달아나려다 호송경찰관에게 그자리에서 붙잡혔다.

사건당시 南部지청 구치감에서는 永登浦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4명이 감시를하고있었다.

金군이 달아나자 永登浦경찰서는 전직원을 비상소집, 검거에 나섰는데 金군은 처음 경찰에 검거되기전에 수용돼있던 서울江西區新亭洞 법무부갱생원에서 8백여m 떨어진 간이음식점에서 라면을 먹고있다가 붙잡혔다.

金군은 지난23일 공범들과 함께 서울汝矣島 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의 헌금을 털려다 검거돼 범죄단체 조직과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구속됐었다.

생강값 폭등

【全州=聯】 김장철을 맞아 생강값이 지난해보다 15배나 뛰어 산지에서 90㎏들이 가마당 34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밭떼기 선매로 시중에서 품귀현상까지 빚고있다.

28일 전북도및 생강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올해 도내 1천1백19단보에서 단보당 평균 9백㎏씩 모두 1천톤의 생강을 생산했는데 이가운데 절반이상이 서울등지의 상인들에게 밭떼기로 팔려 이날현재 산지시세가 90㎏들이 가마당 34만원을 홋가하고 있다는것.

한국인 原爆피해자 48명 來渡日치료

【廣島(日本) 26日 AFP=聯】 한국인 原爆피해자48명이 치료를 받기위해 내년3월말까지의 81회계연도중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日本후생성이 26일 밝혔다.

후생성대변인은 이들 한국인들이 原爆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후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끼(長崎)에 있는原爆피해자병원에 2~6개월간 입원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후생성은 최근 한국에 原爆피해조사단을 파견, 한국原爆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약 9천3백명의 환자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한국의사들과 협의한후 81회계연도부터 5년간매년 약50명씩 한국인피해자들을 일본에서 치료해주기로합의했다.

安益泰씨 미망인 큰딸과 함께來韓

애국가 작곡자인 고安益泰씨 미망인 로레타여사와 큰딸 에레나씨(33)가 27일하오5시30분 대한항공 902편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로레타여사모녀는 7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고安益泰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친지들 만날 예정이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큰딸 에레나씨는 방한소감을 「코리안 팬터지」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어릴때 아버지가 들려준 아리랑 가락이 귀에 생생하다』고 아버지에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어음詐欺 15개派 적발

35명拘束 1천매不渡 35억원被害

회수안된채 市中에 7백여장流通

서울지검 특수3부는 27일 명의로 백지·부도어음을 남발하고 거액을 가로채온 어음사기단 15개파 83명을 적발, 이중 35명을 상습사기및 부정수표 단속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41명을 수배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범행에사용한 백지어음용지, 어음보관증, 인장등 1천69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번에 걸거된 어음사기범들이 고의로 부도를 낸어음이 1천여장으로 피해액(액면가)이 35억원에 이르며 아직회수가 안돼 시중에 유통중인 부도예상어음도 7백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사기범들은 은행도 어음용지를확보하기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직전의 불실회사를 사들인후 은행과 보통예금거래를하며 소액의 예입과인출을반복, 은행의 신용을 얻어 당좌를 개설,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범행에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朴徽林(46·전과2범·구속·서울鍾路區杏村洞18의16)파의경우, 朴씨등 7명은 지난1월27일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태양을 설립,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후 어음용지 1백장(액면합계3억6천5백여만원)을모아놓았다가 이를 이용, 어음할인,물품구입후의 덤핑판매등의수법으로 피해자 박홍장씨등 87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가로챘는데 이들사기범들은 부도예정일자 이후로어음금의 지급일자를 기재해▲백지어음상태로 1장당 40만원~80만원에 팔거나 ▲액면을 멋대로기재, 고율로 할인판매하고▲액면기재한 어음으로 물품을 구입한후 그물품을 덤핑판매하는 수법등을 써왔다.

또 李正東(36·전과3범·구속·서울江南區大峙洞 청실아파트8동1003)파는 李씨등 5명이 파산직전의 大昌사업을 인수,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후 지난 9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어음용지 95장(액면합계 3억5천4백22만원)을 1장당 50만원~80만원씩 판매, 모두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 어음사기단들은 범행을 은폐하기위해▲거주지가 일정치 않고▲약속장소도 다방만을 이용하며▲조직원들간에는 철저하게 은어를 사용하는데다 ▲회사설립,자금조달,당좌개설, 어음판매,구입물품덤핑판매등 범행단계가 분업화된 점조직형태로 되어있어 시민들이 피해를보고도 추적이 불가능한데다 일당중 일부를 고발해도 사기피의자들이 어려워 기소중지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산명

버스굴러 46명重軽傷

迎日郡 國道서 過速으로 커브돌다

【浦項=聯】 27일상오8시40분쯤 경북迎日郡竹長面斗峴里 속칭 옴지들 국도에서 대구 한일여객소속 경북5아3002호 시외버스(운전사 이철원·26)가 운전부주의로 2m의 언덕아래로 굴러 승객 박정수씨(40·迎日郡竹長面斗峴里853)등 46명이 중경상을 입고 대구시내 이혜영정형외과와 엄경섭외과에 분산입원, 가료를 받고있다.

사고버스는 竹長面斗峴里에서 승객 4명을 태우고 대구로 오던중 20도의 커브길을 과속으로 우회전하다 고철자루가 운전대옆에 부딪쳐 운전사 이씨가 한쪽으로 고철자루를 밀어 붙이면서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잘못돌려 언덕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보이스카웃 基金 2천7백만원 횡령

【釜山=聯】 釜山지검 수사과는 27일 보이스카웃 회원들이 낸 기금가운데 2천7백60만원을 빼내 쓴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웃 嶺南연맹 사무국장 金鍵吉씨(40)를 업무상횡령및 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지난해 10월 보이스카웃회원들이 입단비·회비등으로낸 기금3천만원을 신탁은행 釜山洞지점에 정기예금한것을 담보로 지난8월 2천만원을 대부받아 착복했으며 다른 기금 5천만원에 대한 지난3월분이자 3백만원도 가로챘다.

金씨는 또지난달5일 신탁은행釜田洞지점에 정기예금된 다른 기금4백60만원을 중도해약, 6차례에 걸쳐 모두 빼내 가로챈혐의이다.

金씨는 초·중·고생 4만여명이 가입해있는 嶺南연맹의 조직부장을 거쳐 지난9월부터 사무국장으로재직해왔다.

한국일보 詩壇

紅蕉의 極光

崔逸雲

마음의 窓가에
여름철 내내 가을철 내내
그리도 뜨거운 술을
연연한 붉은 花瓣으로
吐하던 紅蕉

이제 찬 서리에
미처 피지 못한
봉우리 마저
검붉은 모습으로
시들어 버렸네。

그 못다한 情
못내 아쉬워
꽃목장이 하나 잘라
花甁에 꽂고
푸닥거리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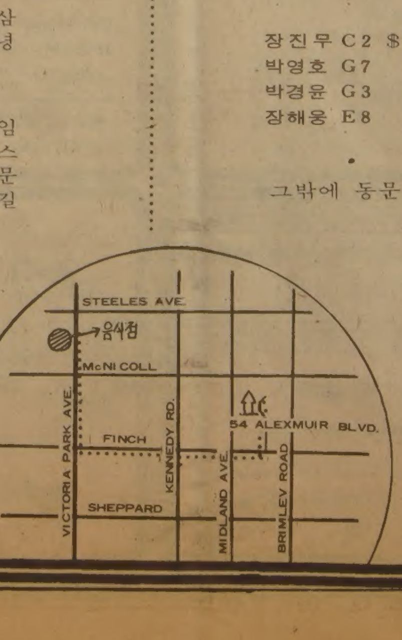
내 그대를 싣고
氷原의 복판에
잃었던 젊은날의 아쉬움을
풀무질 하면
그대는 정녕코 화사하게
피리라。
北極의 하늘에 오로러의
宮殿이 서기까지―

동문 여러 가정에

계절감각에 무디어 살다가도 년말이 다가오면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모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외대동문 가정에 안녕하심을 문안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년중행사의 하나인 제7회 크리스마스 파티관계를 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그간 호텔에서 해 오던 파티는 좀 더 자유스럽고 친밀한 분위기를 위해 디너는 중국집에서, 그리고 파티는 동문댁에서 하기로 했읍니다. 미리 틈을 내시어 하루 저녁을 다같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 : 1981년 12월12일(토요일) 오후7시정각
곳 : 1) Dinner－Santoria Chinese Cusine(3600 Victoria Pk. Ave.)
2) Party－최 동 주 부회장댁(시간은 중국집에서 디너를 마친후가 되겠으며, 약도는 별지를 참조하세요.)
56 ALEXMUIR BLVD. AGINCOURT.(293－9970)



그리고 그간 우리 동문회를 위하여 다음 여러분들이 회비 이외의 찬조금을 보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장진무	C2	$100.00	오세희	F4	$100.00	최종원	G5	$100.00
박영호	G7	100.00	원재훈	S8	50.00	박희영	J9	100.00
박경윤	G3	100.00	김영배	E5	100.00	최동주	F6	100.00
장해웅	E8	150.00	김경자	E9	50.00	최진영	F22	50.00

그밖에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닿으시는대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회장－장 해 웅(884－7783(B), 884－2819(R))
부회장－최 동 주(535－6004(B), 293－9970(R))
총 무－박 영 호(443－4275(B), 444－0485(R))
고 문－장 진 무(494－5308(R))

회장단 일동 드림

외국어대학 동문회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亞洲올림픽委(OCA)發足키로

뉴델리大會 끝으로 AGF는 來年 자동폐지

AGF總會합의…南北예멘 34번째 회원국加入 결의

【뉴델리26日=聯合】26일하오 이곳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총회는 논란끝에 아시아스포츠를 총괄하는 기구를 새로창설키로 원칙적인 합의를보고 이기구의 이름을 OCA(아시아 올림픽 위원회)로 결정, 내년도 제9회 아시안게임이 끝난후 정식발족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AGF는 내년아시안게임후 OCA가 발족되면 폐지된다.

이날 총회는 南北예멘을새 회원국으로가입시켜 AGF회원국은 34개국으로늘어났다. 自由中國은「中國—臺北」의 이름으로 새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中共의반대로 일단보류, 내년도 총회서 다시 다루기로했다.

한편 이날 AGF총회는내년도 제9회 아시안게임종목중 골프를 제외, 20개경기종목을최종확정하고대회를印度 뉴델리에서내년11월19일부터 12월5일까지벌이기로했다.

서울開催 각국代表 환영
中共등 일제히 祝賀박수

【뉴델리=聯合】서울이 86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 되는 순간은 올림픽유치의바덴바덴만큼 극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매우 감동적이었다.

北韓과 中共이 포기한 경위에 관한 메타사무총장의 설명이 끝나자 각국대표들은 의장이 결의하자는 제의를하기도전에 박수로 서울개최를 지지했다.

라자·싱 아시아경기연맹(AGF)의장이『서울개최를 지지합니까?』하자 中共을 포함한 각국대표단들은 또한번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曺相鎬대한체육회장에게 축하의 악수를했다.

86년10월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韓國대표단은 27일하오7시30분(현지시간) 총회장소인 아쇼크호텔 4층 연회장에서 각국대표단을 초치, 축하리셉션을 베풀었다.

이날 리셉션에는 北韓,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24개국 대표등 1백50명이 참석해 성황.

특히 中共대표단은 헤젠(IOC) 위원및 리우·고·장, 투·밍·메등 3명이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시종 각국대표단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등 주저없이 능동적인행동을 취해 관심을 끌었다.

헤젠IOC위원은 리셉션이 끝나고 퇴장할때 曺회장이 中國語로『셰셰』(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감사합니다』라고 우리말로 되받아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또한北韓측은 韓國의 리셉션에 이어 같은 호텔 다른장소에서 열린 조직委의 리셉션에는 참석해 다른 대표들의 눈총을 받기도.

韓國대표가『왜 우리리셉션에는 안왔느냐?』고 묻자 北韓대표는『구두로 나와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초청장은 받지못했다』고 어물쩍.

韓國대표단은 이번총회에 88올림픽이란 글자를새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와서 이날 초청장과함께 北韓을 포함한 각국대표단에게 전달했다.

韓國系 體操스타 넬리·킴 스포츠 解說家로 활약중
모스크바選手權서

【모스크바=聯合】몬트리올 올림픽 金메달 리스트,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챔피언이었던 한국계 蘇聯의 체조스타 넬리·킴은 체조경기 무대에서은퇴했으나 이번 모스크바 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여전히 분주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보내고있다.

가장 여성적이고 우아한 연기, 언제나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세계매스컴의 각광을 받아왔던 넬리·킴은 결혼후에도 체조 코치로 활약, 체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집념을 보여 왔는데 이번대회에는 蘇聯의 타스통신과 텔리비전을 위해 스포츠해설가로 등장,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금 24세인 넬리·킴은 蘇聯이 이번까지 최근9년간 7번 여자체조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었다.

◇넬리·킴

개구리 滅種危機

忠北지방 채취꾼몰려 마구남획

탕·튀김料理집盛業
江·河川 파헤쳐…自然경관훼손

【忠州·堤川=聯合】자연경관이 이름난 忠北 忠州 中原 槐山지방에 개구리채취꾼이 크게 몰려 해충의 천적인 개구리를 남획, 멸종위기를 맞고있다. 더구나 이지역에는 2개월전부터 수석채집꾼들까지 몰려 수석을 마구채취해가 경관이 훼손돼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구리까지 수난을겪고 있다는것.

中原군上芼면彌勒리 松界계곡, 文法리五加川등지에는 요즘 토·일요일및 공휴일에는 개구리채취꾼들로 크게붐비고 있다.

5, 6년전까지만해도 일부농촌지역주민들이 식용으로 잡아온 이개구리는 지금은 관광온 도시지역주민들에 의해 마구 남획되고있다.

이들은 지렛대와 그물로바위 또는 돌밑에서 월동을하고 있는 개구리를 잡으려고 강·하천·계곡을 마구 파헤쳐 자연경관을 해치고있는데 도시지역주민들이 이같이 개구리잡기에 열을 올리자 현지주민들도 돈벌이로 이에합세하고있다.

忠州·水安堡·松界溪谷등지에는 개구리탕·개구리튀김집들이 인기속에 늘어나 성업중인데 개구리는 마리당 2~3백원에 팔리고있다.

이 식용개구리는 배의 바나이 붉은색이고 등과다리는 모래색깔을 하고있으며 각종 요리에 사용되고있다.

北傀, 訪問외교强化
11月에만 6차례나

【서울=聯】北傀는 최근 黨·政·軍고위사절단을 잇달아 阿洲지역을 비롯한 東·西歐지역에 파견하는등 訪問외교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北傀는 최근 黨정치국원겸 국제부장 金永南이 西獨 사회당(SPD)위원장과 회담, 對西獨 접근책을 모색하고 이어 오스트리아를 거쳐 돌아온 후 곧 中共을 방문케해 黨주석 鄧小平, 中共부수상 姬鵬飛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쌍방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것을 비롯해 인민무력부副部長 白學林을 장으로한 北傀軍대표단을 阿洲의 루안다·탄자니아·모잠비크를 방문케하는 한편 最高인민회의議長 黃長燁일행을 루마니아·유고에 파견하는등 이달들어서만도 6개에 달하는 고위 黨·政·軍사절

車範根맹활약2골
바레인遠征경기서

【매나마(바레인)26日=聯】車範根이 소속된 西獨의 프로축구 아인트라흐트·프랑크푸르트팀은 25일밤 두바이에서 가진 친선경기에서 車範根의 맹활약에 힘입어 현지의 알·나스르팀을 4-0으로 대파했다. 이날 경기에서 차범근은 2골을 터뜨렸다.

中東을 순회중인 프랑크푸르트팀은 23일 이라크의 안·아라비팀과의대전에서는2-1로 패했었다.

◇車範根

蘇, 5全勝선두달려
월드컵 男子排球

【東京26日=聯】작년도우승국인 소련은 26일 속개된 월드컵남자배구선수권대회5일째경기에서 쿠바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 5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있다.

이날경기에서 또한 브라질은 튀니지를 3-1로, 폴란드는日本을 3-2로, 그리고 中共은 이탈리아를 3-1로 각각 물리쳤다.

在日동포金義明 近鐵入團에합의

【東京支社】25일 日本프로야구신인 드래프트에서 선발순위 1위의 긴데쓰(近鐵)·버팔로즈에 1번으로 지명된 在日同胞 신예 金義明(報德商)은 27일 당초자신의 꿈이던 한큐(阪急)·브레브스 입단을 포기, 긴데쓰에 입단키로했다.

金義明은『지금도 한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없다. 그러나 최초의 지명권을 가진 긴데쓰가 나를 드래프트 1번으로 선택해준데 감사한다』고 자신의 심경을밝혔다.

金義明의 계약금이나 연봉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긴데쓰와계약조건에 합의한것으로 알려

北韓보다 준비越等
票對決했어도 勝利
페灣國들 환영

【매나마(바레인)26日=聯】中東의 체육계는 26일 오는 86년 아시안게임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한 아시아경기연맹(AGF)의결정을환영했다.

바레인올림픽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사빈·알·칼리파 공보상은 韓國이 오는 88년 올림픽과 함께 86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성공한것은『훌륭하고 흥륭한일』이라고 치하하고 韓國이 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길 희망했다.

그는 이어 바레인과 다른 페르시아灣國들이 다가오는 서울의 두大會에 적극참여할 수있도록 노력을 아끼지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의 정부 관계자들도 AGF의 서울유치결정을 환영하고 적극적인 체육교류를 통해 아랍국과韓國과의 관계가 보다 증진되길 희망했다고 현지 韓國공관들이 전했다.

칼리파공보상은 또 北韓의 유치포기에 대해 만약 南北韓이 표대결을벌였더라도 시설등 모든면에서 北韓보다준비가 월등한 韓國이 승리할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나의 이력서

〈鷺字·元一漢〉

元一漢 ⑤

1915년 延禧專門 개교

뉴욕대학으로부터 할아버지(元杜尤)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아버지(元漢慶)가 학사학위를 받은 것이 1912년 6월이다.

그때 할아버지는 대학설립을 위하여 5만2천달러의 기부를 얻어가지고 귀임했고 아버지는 몇달후 미국장로교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대학설립문제가 선교사들간에 의견이 맞지않았기 때문에 지연돼 오다가 에비슨 박사등의 주장과 같이 낙착되어 1915년이돼서야 각교파와 연합으로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임시로 개교를 보았다.

개교는 했으나 당국으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얻지못해 儆新학교대학부의 명의를 빌리기로하고 할아버지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대학령이 없었으므로 專門學校令에 의하여 학교를 조직하니 이것이 延禧전문학교의설립으로 학교부지는 할아버지가 얻은 기부금으로 구입케된 것이다.

선교사 자격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처음 맡은 일은 儆新학교 영어교사였다. 延禧전문학교가 개교한 뒤로는 延禧전문으로 옮겨 영어강의를 맡기 시작했다.

1916년은 우리「元씨」가문에 있어서는 경사와 슬픔이 엇갈린 해였다. 할아버지는 선교사업 뿐아니라 교육사업에 정력을 기울인 탓으로 건강이 매우 쇠약해있었다.

당시 최고학부설립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만난을 무릅써야했고 日帝시대 교육령에 따라 교육사업에 종사하는사람은 日語로 가르쳐야했기 때문에 6순이 다된 나이에 東京에 가서 어학을익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東京에서 병세가 나빠져 휴양차 미국에 갔다가 그해 10월12일 영면하니, 그길로 한국땅을 다시 밟지 못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국교회의 근본원칙을 자립, 토착화, 교파연합등에 두고 연구와 노력을 계속했고 자신이 믿을수 있는일은 하나도 손대지않은일이 없을정도다.

적게는 목수·난방장치의 일로부터 전도공사와 학문으로는 신학·문학·법학·철학·자연과학에 정통했다.

할아버지가 이땅에서 31년간 봉사하는동안 나는 不可能을 알지못한다고 했다는 평소생활표어『Laughs at impossibilities and says it shall be done』(어려운일도 웃으면서 착수하면 잘 풀리리라)로도 잘 짐작된다.

한편 나의 부모 호러스·H·언더우드와 에델·반·와그너부부는 그해 12월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탄생케된다.

어머니는 미국 미시간주 킹스턴에서 농민의 딸로 태어나 대학교육을 받은뒤 선교부의 추천으로 1912년 한국외국인학교의 선생으로 파송돼왔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온 같은해에 한국땅을 밟은 것이다.

아버지는 儆新학교에서, 어머니는 외국인학교에서 각각 교편을 잡으면서 사석이나 공석에서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어머니가 4년간의 약속된 임기가 끝나 1916년 봄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선교사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조촐한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한다.

그러다가 막상 어머니가 서울을 떠난뒤 아버지는 부랴부랴 배를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시모노세끼까지 쫓아가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 사랑을 고백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31년간 이땅에남긴 업적가운데 성서번역은 가장 두드러진 일로 기억되고있다. 1900년대성서번역위원들. 右로부터 뒷줄 문경호, 김명준, 정동명, 앞줄 레이놀드, 언더우드, 게일, 허버트스 等.

다음해10월 할아버지 別世

12월엔 아버지와 어머니 뉴욕서結婚

流星의 賦

<24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⑫

경주·밀양·동래 삼읍의 기생들을 총동원한데 연석(宴席)에 있어서 가무(歌舞)를 잡히기 위한 탓도 있었지만 원행(遠行)할 사신들의 객고(客苦)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하룰 벌배는 제외하고 이른바 관(官)자가 붙은 사람에겐 말단에 이르기까지 기생이 고루 배정되는 것이라서 훈계남도 뜻 박인 일로 생각하진 않았으나 심상이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 집주인 갑씨가

『기생이 왔읍는데요』

했을 때 서슴없이 말했다.

『돌려보내슈』

그런데도 사뿐 마루에 올라서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래부사 영감의 분부 받자와 대령하였읍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일이 없대두 그러네. 빨리 돌아가게』

계남이 거칠게 말했다.

그러나 마루 위의 기생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계남은 펴 놓은 침구 위에 벌렁 드러누으며

『먼 길을 걸어오자니 지쳤다. 아가씨도 돌아가 쉬시구려』

하는 말을 던졌다.

『쉰네는 마루에서 밤을 새우겠사오니 괘념 마시고 유하사이다』

하는 기생의 말이 가냘펐다.

마루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기생을 가만 둘 수 없어 계남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리로 들어오게. 밤을 두고 마루에서 밤을 새울 수가 있겠나』

기생이 방으로 들어와 펴 놓은 이불을 밟지 않게 조심하면서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았다. 나이는 스물하나, 둘 가량이나 되었을까. 미색이라고 할 순 없었으나 이목구비는 단정한 편인데 얼굴엔 수색(愁色)이 짙었다.

『소녀의 이름은 수월이라고 하옵니다』

하고 일순 계남을 쳐다보곤 눈을 아래로 깔았다.

『수월이라, 이름이 좋군』

『황공하오이다』

계남은 적당히 자리에 비집고 자라고 할까 했지만 웬지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렇게 만난 연분도 대단한 건데 내가 푸대접을 해서 미안하군』

하곤 물었다.

『수월은 동래부의 관기인가?』

『예』

『어떻게 기적(妓籍)에 들게 되었나』

『저는 모르옵니다』

『모르다니, 자기가 기적에 들게된 내역을 모르다니 그게 될 말이나 한가』

『전 나면서부터 기적에 들어 있었아옵니다』

『그럼 어미도 기생이었군』

『예』

『아버지는?』

『권가성(權家姓)을 가졌다고 들었을 뿐 아버지를 본 적도, 아버지에 관해 아는바도 없읍니다』

그 말을 듣자 계남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어이한 팔자인고…』

하는 느낌이었다.

계남은 자리를 비워주며 누워 눈을 붙이라고 하고, 불을 끄곤 벽을 향해 몸을 누이었다.

웃 벗는 소리와 더불어 자리에 누운 수월이 나직이 속삭였다.

『나으리, 절 소박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애처로왔다.

■送年女流短篇

내 발에 등불

<5>

梁貴子 作
金光培 畵

처음이 어려웠다.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던 그처음이 어려웠을 뿐 우리는 긴겨울의 동굴에 같이 디밀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어있는 호주머니 속엔 서로의손이 들어 있었다.

낮이면 토론 두개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밤이면 우린 서로 미진한 가슴을 다독거리며 헤어졌다. 때로 한밤중에 문득 그녀의 얼굴이 보고싶어 미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밤 열두시에는 단절되어버리는 사랑. 새벽 네시엔 도무 없는 애달픈 사랑. 나는 그로 인하여 더욱 찾아볼 수 없는 밤이나 낮이나 열병처럼 그녀를 앓았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 더욱 치밀해지는 열병. 다음날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될 때까지 갈라진 입술을 넣으로 축이며 밤새 작은 꽃잎같은 그녀가 건재하기를 근심하는 터였다. 미련한 사내가 되어버렸다.

승희와 나는 어디든 갔었다. 버스를 내리는 곳은 언제나 종점의 외곽지대였다. 잎 떨어진 나무들이 새끼줄에 칭칭 감겨 스산한 울음을 뿌리는 거리에서 소름돋은 얼굴로 마주보아도 가슴은 따뜻했다.

겨울은 막강한 힘으로 모든 곳에 진주해 들어와서 사람들도, 전돌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승희와 같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겨울은 늘 부드럽고 달콤했다.

『오른손을 내밀어봐』

승희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며 말했다. 길고 마른 나의 오른손이 허공중에 드러났다.

『잡아줘』

승희의 입술이 엷게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등뒤로 여전히 불고있는 바람과 얼음과 추위들이 보였다. 우리들의 맞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나는 바람에게, 얼음에게, 추위에게 말했다. 안녕. 이제 너희들의 손아귀에선 벗어난 셈이야. 잘 가.

십이월이 시작되던 날, 승희는 내게 말했다.

『날마다 나하고만 놀을래요?』

내 마음이 문득 참으로 절리운 것처럼 아팠다. 실업자, 성인남자로선 가장 치욕적인 텐데르가 아닌가? 승희, 너를 소유할 수 있는 첫번째 자격부터 상실한 남자. 그동안 내가 보여주었던 이 궁상이 익살스러운 경지를 벗어나 처연해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나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래, 이젠 바닥이 났어. 노래라도 팔아야 겠어』

나는 줄 끊어진 기타를 떠올렸다. 낡은 그 기타와, 술 푼 내 노래를 사줄 자리가 몇군데 있긴 하였다. 가장 삼류스러운 딴따라 생활로 젊음을 막간 가수, 혹은 대기 가수…

『팔 거라도 있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승희가 어두운 얼굴을 지어보였다. 그래도 깨끗한 그 눈은 쉬 더럽 타지 않았다.

집이 어딘지 가르쳐줘.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뭐든 한가지만 더 가르쳐줘. 나는 매일 그녀에게 졸라댔다. 이제 내가 밥벌어먹을 자리를 찾게되면 그녀의 연락처쯤은 알고싶었다. 내 자취방앞에 꿈처럼 그녀가 서있듯이 나도 그녀의 방 창문 아래라도 서있고 싶었다.

집은 있어도 내 집이 아니야. 전화도 마찬가지야. 더이상 말할게 없어. 그냥 이겨울을 같이 보내. 춥지않게 …조르지 말아요.

그럴 때마다 승희는 내 누나처럼 나이든 얼굴을 지어 보였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내고향 통닭집"
●각기우동 ●오뎅백반
●설렁탕 ●군만두
●오뎅 ●빈대떡
●통닭
(김밥, 샌드위치등)
※각종 파티용 주문환영
※무료로 배달합니다.
537—0432
MR. 리
주소 : 658½ BLOOR W.
(블루어×매닝)

IATA
즐거운 서울방문
알찬 여행계획
*저렴한 모국방문 항공표
*특별요금 이민 항공표
*중남미 구라파 여행표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9)을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한국일보는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광고부
533·236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SHINHAN THE KOREA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도넛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금. 토근무. 오후11시~아침7시.
☎ : 482 4088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크럽자켇만들 재봉사 모집
☎ : 241-5348

FULL TIME 쿡 구함
주 6일일함.
☎ : 421-6016

KEELE & WILSON 지역 가게에서 일할 경험자.
FULL OR PART TIME HELPER 구함
☎ : 221-2084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파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지역이면 좋음)
☎ : 267-4770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동업자 구함
아주적은 투자로서 좋은 사업 할 수 있음.
한국서 고졸이상자의 학력 소지자로서 캐네디안과
충분한 대화를 할수있는 인격을 갖춘분 환영함.
☎ : 962-0019

일요일 헬퍼구함(여자) (12시~저녁8시)
921-0624(다운타운소재)

● 레스토랑에서 일할분(FULL TIME)
● 좋은 대우
☎ : 486-1112(후랭소와)

매매및 양도

건물및GROCERY STORE 매매
매상 : $3,500~4,500
☎ : 535-0028(MR.KIM)

버라이어티 스토아 PLUS2베드름 아파트 매매
스카보로에 있음. 최저 주매상 : $2,500
보증하고 $4,000으로 올릴수 있음. 좋은리스,
GLORIA GRANT 나 NINA WARREN에게 연락요.
☎ : 694-3336, 690-9983
FAMILY TRUST CORPORATION REALTOR.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① 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 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③ 그로서리(연매상 $700,000, 주6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C., REALTOR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29000
☎ : 423-9899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UCK SHOP
HAMILTON 소재 1600 SQ.FT.
RENT : $350 5½YR 10YEAR OPTION
APARTMENT COMPLEX에 위치한 유일한
TUCK SHOP임.
현월수 순수익 : $4,000보장.
10시~10시사이 (MRS. 전)
☎ : 1-662-4705

COMMERICIAL BUILDING FOR SALE
2 STORY BRICK DETACHED WITH FULL
BASEMENT GARAGE & PARKING FOR STORE
& 3 BEDRM APTMENT OR OFFICE. VARIETY
BUSINESS EQUIPMENT & STOCK OPTIONAL
☎ : 694-7781

매 매
자개애기 3층장, 나비장, 자개상.
☎ : 661-4581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인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집·방세·하숙

631A BLOOR ST. W. 2층 사무실 SUBLET합니다.
12월1일 입주가능
☎ : 535-6004

BLOOR & DUFFERIN
2베드룸, 교통편리
☎ : 537-5164

구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송 진 표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Q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캄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시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37NORFINCH DRIVE, DOWNSVIEW.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보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은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50% OFF)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기타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L&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